

제1절 한국천주교 전래

정기조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제2절 목포 천주교회의 설립

정기조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제2장 천주교의 목포 전래와 확산

제1절 한국천주교 전래

천주교가 동양에 전파된 것은 13세기 몽고족이 유럽을 정벌한 때부터이며, 우리나라는 1594년(선조 27) 포르투갈 신부 세스페데스(G. Cespedes)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중군신부로 처음 입국하여 일본으로 돌아간 후 조선인 포로들을 보호하며 천주교에 입교시켰으나 그의 선교 행위가 우리나라 천주교와는 아무런 현실적 관련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조(宣祖) 때와 광해군(光海君) 때 벌써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연경사신(燕京使臣)을 통하여 서학(西學) 사상을 받아드려 연구·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1614년(광해군 6)에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이탈리아 중국선교사 마태오 리치(Matteo Rich)를 소개하고 그의 저서인 『천주실의(天主實義)』의 내용도 요약하여 천주교를 해설하였다. 이수광과 동시대 사람인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서학의 천주(天主)와 유교의 상제(上帝)를 동일시하며 『천주실의』에 대하여 보유론적(補儒論的)인 논평을 하였다. 이익(李瀾, 1681~1763)도 『천주실의』 발문(跋文)에서 유몽인과 비슷한 논평을 함으로써 그의 제자들에 이르러 서학을 사학(邪學)으로 몰아 배척하는 측과 학문적 관심을 넘어 이를 신앙으로 수용하려는 측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603년(선조 36)에는 허균(許筠, 1569~1618)이 북경을 왕래하면서 천주교를 신봉, 연구하였고,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는 북경에서 선교사 아담 샬(Adam Schall)과 친교를 맺어 1641년(인조 23) 귀국할 때 서양 학문과 함께 천주교서적·천주상(天主像) 등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나 귀국 3개월 만에 죽어 그의 활동은 남은 것이 없다.

천주교는 처음 일종의 학문으로 연구되어 점차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영조 말 무렵부터는 당시 정권에서 물러난 이벽(李穡, 1754~1786)·권일신(權日身, 1742~1791)·이가환(李家煥, 1742~1801)·정약종(丁

若鍾, 1760~1801)의 3형제 등 남인(南人)의 유력한 사람들이 주어사(走魚寺) 천진암(天真庵) 등지에서 강화를 열고 서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천주교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여 기도와 재계 등으로 천주교 계명의 일부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1. 천주교의 수용과 교회의 창설

1784년(정조 8)에 이벽은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동지사(同知事) 편에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북경에 가면 선교사를 찾아가 교리를 배워 영세를 청하고 많은 천주교 서적을 얻어올 것을 권하였다. 이승훈은 북경에 들어가 북당(北堂)의 신부 그라몽(Grammon, J.J., 梁棟材)에게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아 조선 사람으로서는 세례 받은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1784년 봄에 많은 성서(聖書)와 성물(聖物)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승훈은 돌아오자마자 이벽과 더불어 교리를 연구하고 친지와 친척들에게 전도하여 그 해 9월부터는 입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세성사를 집전하기 시작하였다. 중인인 김범우(金範禹, ?~1786)의 집에서 신앙집회를 가짐으로써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창설되었다.

이벽은 교회창설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창설 직후 복음전파 때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우선 정약전(丁若鉉, 1758~1816)과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형제를 찾아가 복음전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중인계급에도 전파하여 김범우를 비롯 최창현(崔昌顯, 1759~1801), 최인길(崔仁吉, 1765~1795), 지항(池瓊) 등을 입교시켰다. 또한 그는 신생교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를 입교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양근(楊根)의 권씨(權氏) 일가를 찾아가 전교하여 권철신(權哲身, 1736~1801), 권일신(權日身, 1742~1791) 형제를 개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권일신은 개종과 더불어 열렬한 복음전파자가 되어 제자인 호서출신 이존창(李存昌, 1752~1801), 호남출신의 유항검(柳恒儉, 1756~1801)을 입교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천주교를 충청지방과 전라지방에까지 널리 전파시킬 수 있었다.

이들 교회지도자들은 1786년에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 아래 성세성사만이 아니라 고백성사, 성체성사 등 다른 성사까지도 집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승훈, 유항검, 권일신 등 10인을 신부로 임명하여 경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유항검은 교리서를 읽으면서 견진성사 집전이 불법이고 독성적(讀聖的) 행위임을 깨닫고 이승훈 등 교회지도자들에게 성사를 중지하고 밀사를 북경교회에 파견하여 지시를 받도록 서면으로 건의하였다.

유항검의 서신을 받은 이승훈은 가성사집행을 일단 중지시키고 자세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양반출신 윤유일(尹有一, 1760~1795)을 밀사로 정하여 1789년(정조 13) 10월에 동지사 이성원(李性源) 일행을 따라

1790년(정조 14) 봄 북경으로 들어가 북경천주당에서 구베아(Alexander de Gouvea) 주교(主教)의 답신을 받아 귀국하였다. 답신내용은 조선 신도들이 조직한 가성직은 비록 신(神)을 모독한 것이기는 하나 모르고 저지른 행위이기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이었다. 구베아 주교의 서신을 받은 신도들은 용기백배하여 선교사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울 것을 결의하고, 신부(神父)와 양박(洋舶)을 초청하는 밀사를 윤유일로 정하여, 1790년 9월에 청나라 건륭제의 팔순절 진하사(進賀使) 황인점(黃仁黈)의 일행에 끼어 연경에 들어가 무사히 북경주교에게 조선교회의 서신을 전하였다. 윤유일과 동행한 우(禹)라고 하는 관리도 세례를 받고 주교의 답신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두 번째 편지에서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고 그 해 동지사 편을 이용하여 선교사를 조선에 잠입시킬 수 있는 시기와 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약속에 따라 조선국경까지 온 선교사는 그를 맞이하기로 한 조선 교우들과 같이 어긋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북경으로 되돌아갔다.

구베아 주교는 윤유일을 떠나보낸 뒤 조선에 천주교가 기이한 방법으로 탄생한 사실을 로마 교황 비오 6세에게 보고하면서 조선교회를 발전시키려면 관리가 필요하고 북경교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포교성성은 1792년 조선교회를 구베아 주교의 보호와 지도 하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때 조선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북경교회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1793년에 다시금 밀사를 북경에 보낼 수 있었다. 구베아 주교는 다시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여 1794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1794년 말에 조선국경에서 조선인 교우 지황을 만나 그의 인도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이듬해 초 한양에 도착하였다. 얼마동안 조선말과 풍습을 익힌 다음 성사(聖事)를 집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곧 배신자의 고발로 그의 입국 사실이 관헌에 알려지면서 그의 사목활동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저술활동과 교리연구, 복음전파를 위한 명도회(明度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회원들의 성공적인 전교활동, 특히 명도회 초대 회장인 정약종과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의 지도, 여자 회장인 강완숙(姜完淑, 1761~1801) 등 여교우들의 헌신적인 활동 등에 힘입어 조선교회는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주문모가 입국할 당시 4천여 명이던 신자수가 6년 사이에 1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2. 천주교의 시련과 발전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이념적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다. 유교사상과 그 실천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바탕이었으므로 유교에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실학파 학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적과 함께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곧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들었다. 사랑과 평등, 자유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교사상에 젖어 있던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신자들을 동양 윤리의 이단자이며 모든 악의 전형으로 몰아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를 가하였다.

1)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

1785년(정조 9) 3월 이벽·권일신·정약중·정약전·정약용 등 수십 인이 당시 명례방(明禮坊)에 있던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를 보다가 관에 탄로가 났다. 이들은 모두 형조(刑曹)에 잡혀갔으나 판서 김화진(金華鎭)은 이들이 한결같이 저명한 남인출신 학자요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징계하는데 그치고 역관(譯官) 김범우만 충청도 단양으로 귀양 보냈다. 김범우는 증인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배를 갔고 이듬해인 1786년(정조 10) 단양에서 병사했다. 이로부터 조정은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법으로 엄금하였으며, 1786년 정월부터는 북경에서 모든 서적 구입을 금하였다. 1787년(정조 11)에는 반촌의 김석태(金石太) 집에서 이승훈, 정약용, 강이원(姜履元) 등이 천주교서적을 강습하다가 다시 발각되어 천주교의 금압이 더욱 심해지더니, 1788년(정조 12)에는 전국적으로 천주교서적을 수거하여 소각하게 했다.

2) 신해박해(辛亥迫害)

1791년(정조 15)에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으로 일명 진산사건(珍山事件)이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일반 민중 사이에 신봉되어 왔으나 해서(海西), 관동(關東) 지방에 국한되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791년 전라도 진산군의 선비 윤지충(尹持忠, 1759~1791)과 권상연(權尙然, 1751~1791) 두 사람이 윤지충의 모상(母喪)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천주교식 제례를 지냈다는 소문이 조정에 알려지자 논쟁이 벌어졌다. 유교·유학을 숭봉해야 할 사림(士林)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제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더욱이 그 신도들의 대부분이 당시 집권파 서인(西人)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진산군수 신사원(申士源)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 심문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회도덕을 문란하게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으로 1791년 10월 13일 전라감영으로 이송해 11월 3일에 전주 풍남문 밖 형장에서 참수하였다. 이로써 전라도의 윤지충과 권상연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정조(正祖)는 사건을 이 정도로 끝내고 관대한 정책을 써서 천주교의 지도자로 지목받은 권일신(權日身) 같은 인물을 귀양 보내는데 그치고,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더 확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정은 이 일을 둘러싸고 남인계통의 상신(相臣) 채제공(蔡濟恭)을 중심으로 한 신서파(信西派)와 이에 반대하는 홍의호(洪義浩)·홍낙안(洪樂安) 등의 공서파(攻西派)가 대립하여 이후 신유교난(辛酉敎難)으로 신서파가 결정적 타격을 받을 때까지 10년간 암투가 계속된다.

3) 을묘박해(乙卯迫害)

1795년(정조 19)에 신부 주문모의 체포령에서 발단되었는데 주문모 신부는 피신하고 그 대신 최인길·윤유일·지황 등 3인이 포청에서 사형을 당하였으며, 이가환·정약용·이승훈 등이 좌천되거나 유배되었다.

4) 신유박해(辛酉迫害)

1801년(순조 1)에 순조가 즉위하자 정치적으로 득세한 노론 벽파(老論 僻派)가 종교를 빙자하여 남인 시파(南人 時派)를 제거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 보복을 가한 천주교도 박해사건이다.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辛亥迫害) 이후 천주교 문제를 에워싸고 조정은 신서파(信西派)와 공서파(攻西派)로 갈라져 매우 시끄러웠다. 그래도 정조 재위기간은 천주교도들에 대해 관대하였고, 교도들은 신해박해 이후에도 교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비상하여 중국 북경교구에 호소해 1794년(정조 18)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운 용기로 교회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기호(畿湖) 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뒤를 이은 순조가 연소하여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는데 정계(政界)의 노론과 벽파(종교상의 공서파)가 결탁하여 남인과 시파(종교상의 신서파)를 모함, 배격하여 천주교에 대한 대금압령(大禁壓令)이 내려진다. 1801년 1월 10일에 정순왕후는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이름으로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을 엄격히 실시하여 사교(邪教)·사학(邪學)을 엄금, 근절토록 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와 대사간(大司諫) 목만중(目萬中)이 나서서 시파 남인계통의 천주교도들에게 무자비한 박해와 살육을 가하는데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2월에 들어서 천주교신앙의 선구자인 이가환·권철신이 혹형(酷刑)으로 옥사하고, 이승훈·정약중·최필공(崔必恭, 1766~1801)·홍교만(洪敎萬, 1737~1801)·홍낙민(洪樂敏, 1751~1801)·최창현 등의 중요 천주교 간부들이 모두 같은 형장에서 참수당하고, 정약전·정약용 형제는 귀양을 갔다. 사형당한 사람들 중 이가환은 원래 천주교인이 아니었고 이승훈은 전에 배교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형을 당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 박해가 정치적 보복의 색채가 농후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순교이다. 그는 자신 때문에 희생당하는 교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형조(刑曹)에 자수하고 평신도들의 방면을 탄원했다. 한때 청나라로 송환할 것인지를 검토한바 있었으나 결국 군문효수형(軍門梟首形)으로 끝났고, 여기 연루되어 강완숙 등 9인도 참수되었다. 또 주문모신부에게 세례 받은 종친(宗親) 은언군(恩彦君)의 부인 송씨(宋氏)와 며느리 신씨(申氏)도 사사(賜死)되었다. 마지막으로 황사영의 순교이다. 교인 황사영은 북경에 있는 주교(主教)에게 국내의 혹독한 박해의 진상과 그 대책을 흰 비단에 기입한 밀서를⁰¹⁾ 그 해 10월에 떠나는 동지사(同知事)편에 전달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9월 29일 충청도 제천군 봉양면 배론(舟論) 가마골 천주교도마을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11월 5일 처형되었다. 가산은 적몰당하고 어머니는 거제, 처는 제주도, 아들은 추자도에 각각 유배되었다. 또한 봄에 갇혔다가 풀려난 정약전·정약용 등 남인의 인사들도 다시 잡혔으나 백서와 무관하여 유배로 끝났고, 계획에 가담했던 편지전달 예정자인 황심(黃沁, 1756~1801)과 옥천희(玉千禧)는 처형되고 황사영만은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로 능지처참(凌遲處斬)되었다.

한편 호남 지방에서도 신유박해의 여파로 천주교 지도자 10인 중 한 사람이며 전라도에 천주교를 최초로 전달한 양반 출신 유항검이 전라감영에 붙잡혔다. 전라감영은 3월경 조정의 명령에 따라 유항검의 집을 급습하여 유항검과 그의 아우 유관검(柳觀儉), 윤지현(尹持憲), 유항검의 큰 아들 유중철(柳重哲), 가정교사 한정흙(韓正欽), 여종 김천애(金千愛) 등 일가족을 모두 잡았다. 문초를 받던 유관검은 고문에 못 이겨 윤유일을 밀사로 북경에 파견하여 북경과 서울소식을 주고받은 일, 주문모 신부의 모명(保命)과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 대박(大舶)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그가 전교(傳敎)했던 신자들을 모두 밝히고 말았다. 이리하여 영광(靈光) 사람인 이우집(李宇集)을 비롯한 200여 명의 천주교도가 붙잡혔다. 특히 전라 5수인 유항검·유관검·윤지현·이우집·김유산(金有山)은 갇은 고문과 신문을 당한 끝에 결국 천주교를 신앙하였다는 죄목과 서양 선박을 청하여 우리나라를 위협, 천주교를 인정하게 하려는 계책을 꾸몄다는 대역부도죄를 선고받았는데, 유관검과 윤지현은 모역동참죄(謀逆同參罪), 이우집은 지정불고죄(知情不告罪), 김유산은 전서부답지정불고죄(傳書付答知情不告罪)가 각각 선고되었다. 이들은 전주로 압송되어 1801년 9월 17일에 처형되었으니, 유항검형제와 윤지현은 능지처참, 이우집과 김유산은 참수되었다. 또 유항검의 큰 아들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李順伊, 루갈다)는 ‘동정부부순교자’로 배교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권유를 거부하고 순교하였다. 그리고 형률(刑律)이 적용되지 않는 둘째 딸과 유일석·유일문은 귀양 가고, 나머지 자식 4명도 순교하였다. 윤지현의 가족도 모두 체포되었는데 그의 처는 거제도, 아들 윤종원, 윤종근, 윤종득은 제주도, 흑산도, 해남 등 노비로 보내졌고, 딸 윤영일, 윤성애는 경흥과 벽동의 여비(女婢)로 보내졌다.

01) 길이 62cm, 너비 38cm의 명지비단에 1만 3천 여 자를 먹으로 깨알같이 쓴 장문의 편지.

이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 내 천주교 탄압의 이유와 주문모 신부 처형에 대한 경위를 백서(帛書)의 내용과 함께 밝힌 「토사주문(討邪奏文)」을 진주사(陳奏使)와 함께 청나라로 보내 박해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척사윤음(斥邪綸音)을 전국에 선포하여 박해 행위를 변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박해로 인하여 만 1년 내외에 서울과 전주에서 300여 명 이상의 교인이 학살당했다.

5) 정해박해(丁亥迫害)

1827년(순조 27) 전남 곡성(谷城)의 덕실마을 웅기토굴에서 발생한 작은 다툼이 교난(敎難)으로 발전하였다. 이 웅기가마에서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인 한벽겸(韓碧謙)이 주막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고발당한 것이 많은 천주교신자가 붙잡히는 큰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곡성현감은 조정으로부터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망 온 일본인 천주교 신자 6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터라 온 고을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잡아들였다. 이때 천주교 신도들은 난을 피해 타지로 피신하게 되었고 이는 전라도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박해는 2개월 간 계속되었고 한때 모든 감옥이 천주교 신자들로 가득 찼다. 옥에 갇힌 신자만 약 240여 명이었으며, 난을 피한 신자들의 교회활동은 볼 수 없게 되었다.

6) 기해박해(己亥迫害)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천주교도 박해사건이다. 1801년 신유박해로 천주교회의 교세는 꺾였으나 그 후 교세는 점차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1831년(순조 31) 프랑스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에서는 중국 북경교구에서 조선교구(朝鮮敎區)를 분리시켜 천주교 부흥을 기하고, 1836년(헌종 2)에 프랑스 신부 모방(Maubant, P.P.)을 파견하더니, 샤스팡(Chastan, J.H.)·앵베르(Imbert, L.M.J.) 등이 들어와서 엄중한 감시 하에서도 비밀리에 전교활동을 전개한 결과 신자수가 9천 명을 넘게 되었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하여 1839년 3월에 이르러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조정은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외척 안동김씨(安東金氏)와 대립하는 헌종의 모후인 풍양조씨(豐壤趙氏)가 새로 등장하면서 천주교도 박해에 앞장선 것이다. 즉 이조판서 조만영(趙萬永)과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 등이 무자비한 박해를 일으키니, 4월 12일에 권인득(權仁得) 이하 8명이 처형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전주 등 각 지방에서도 천주교도들이 투옥되거나 살육 당했다. 7월에는 앵베르주교와 모방, 샤스팡 등 3인의 외방신부가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8월 14일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서양인 신부가 당한 최초의 순교였다. 이어서 다음날에는 서양인 신부 초빙에 유공한 정하상(丁夏祥, 1795~1839)·

유진길(劉進吉, 1791~1839)이 참수당하여 교회의 수뇌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정하상은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천주교 박해의 부당함을 역설한 『상제상서(上宰相書)』⁰²⁾를 작성하여 조정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정세는 청나라에서 아편밀수(阿片密輸) 문제로 영국과 치열한 분쟁이 있던 시기여서 이에 자극받은 조선도 이 기회에 천주교를 근절하여 서세동침(西勢東侵)을 막자는 분위기였기에 박해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국적이고 무자비하였다. 이 해에 정식 재판으로 참형당한 교도가 70여 명(과반수 이상이 부녀자였다)이며, 이 밖의 방법으로 60여 명이 더 살해되었다. 이로써 천주교는 다시 침체, 위축되고 말았다. 헌종(憲宗)은 10월 8일에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발표하고 오가작통법을 더욱 강화시켜 천주교 신앙을 엄금하였다.

7) 병오박해(丙午迫害)

김대건(金大建, 1821~1846) 신부의 체포가 발단이 되어 그와 남녀교우 9명이 순교하였다. 순교자 중 당시 천주교한양회장 현석문(玄錫文, 1799~1846)은 기해박해 아래 순교자들의 자료를 수집, 기록한 『기해일기(己亥日記)』⁰³⁾의 저자로, 성직자가 없는 교회를 한동안 이끌어온 지도자였다. 특히 1836년(헌종 2)에는 의주(義州)까지 가서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주교를 한양으로 데리고 왔고, 샤스팡 신부를 수행하며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전교에 힘썼다.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로 부모 형제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3년여 동안 감시망을 피해 상해까지 피신하면서 『기해일기』를 완성,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배포했다. 그 뒤 그는 1845년(헌종 11)에 김대건 신부를 수행, 상해에서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Ferreol, J.J.J.B.) 주교를 비밀리에 대동해 왔고, 이듬해 9월 한양에서 잡혀 9월 19일 새남터에서 참수 당했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순조 21)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솔피)에서 순교자 집안인 아버지 김제준(金濟俊)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재복(再福), 이름은 지식(芝植), 세례명은 안드레아이다. 6세 때 경기도 용인군 골배마을로 이사했고, 1836년(헌종 2) 12월 9일 16세에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1821~1861)·최방제(崔方濟,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올랐다. 한양 출발 8개월 만에 마카오에 도착, 1837년(헌종 3)에 로마교황청 포교성 직속 경리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 1842년(헌종 8) 2월 프랑스 함대 에라곤호 함대장 세실(Cecille)의 통역관으로, 최양업은 파브리트호 통역관으로 각각

02) 정하상(丁夏祥)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서(護敎論書)로 3,400여 자로 쓴 글이다. 천주교의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였으며 보유론적(補儒論的) 견지에서 천주(天主)의 존재를 논하고 천주교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종교가 아니며, 주자학적 전통에도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사회적 윤리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03) 『기해일기(己亥日記)』는 바티칸국 고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승선했으나 프랑스함대의 사업계획 변동으로 9월 12일 함께 하선하였다. 1844년(헌종 10) 12월 15일 만주 장춘부근 빠자쯔(八家子)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1845년(헌종 11) 1월 15일 한양에 도착, 남대문 밖 석정리에 거소를 정하고 암약하였다. 그 해 봄 페레올 주교를 모시고자 밀선을 타고 조선을 출발, 6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8월 17일 상해 진자강(金家港)성당에서 페레올 주교 집전으로 사제성품을 받았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된 그는 9월 18일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Daveluy, M.N.A.) 신부를 대동하여 목선을 타고 상해를 출발, 9월 28일 제주도를 거쳐 충남 강경 황산포 연안에 도착, 한양에 잠입하여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고 북경 주교와 조선으로 입국 예정인 선교사에게 보낼 서신과 황해도 연안의 지도를 중국선박 편으로 보내고자 1846년 5월 14일 마포나루를 출발하여 5월 28일 백령도 근해에 도착했다. 어렵사리 중국어선을 만나 편지 6통과 황해도 연안 지도 2매를 무사히 탁송하고, 웅진군 순위도(巡威島) 등산진(登山津)에 도착했다. 그날이 6월 1일로 돌아갈 어선이 싼고 갈 소금에 절인 생선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6월 5일 그곳 관헌에게 붙잡혀 6월 27일 한양 포도청으로 이송되었다. 40여 차례 심문 끝에 9월 15일 어전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되었고, 다음날인 1846년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그는 6개국 언어를 구사했고, 세계정세에 밝아 조정에서는 그를 살려내 나라의 인물로 쓰고자 여러 차례 배교를 권했다. 어전회의를 두 번 개최했을 정도로 그의 처벌을 반대하는 중신들이 많았다.

8) 병인박해(丙寅迫害)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천주교도들을 학살한, 역사상 가장 큰 박해사건이다. 흥선대원군은 집권초기에 천주교에 대한 적대정책을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감행하게 된 이면에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1860년(철종 11) 북경조약으로 연해주(沿海州)를 차지한 러시아는 조선 국경을 자주 침범하더니, 1864년(고종 1)에는 함경도 경흥부(慶興府)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던 차 천주교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 흥선대원군에게 건의하였다. 즉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조·불·영 3국동맹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인 선교사를 초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선교사와의 사전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흥선대원군의 태도에 신속히 응하지 못하고 베르뉴(Berneux)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는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러시아의 정세변화로 월경문제와 통상문제를 거론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천주교도의 무책임한 주선으로 운현궁(雲岫宮)에 천주학쟁이가 출입한다는 소문만 장안에 퍼지게 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의 출세를 적극 지원하던 조대비(趙大妃) 이하 요로(要路) 대관(大官)들도 천주교도의 책동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때

마침 청에서도 천주교 탄압이 다시 고개를 들어 흥선대원군으로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을 피하고자 천주교도와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고 목전의 여론에 편승한 결과 1866년 정월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탄압 교령(敎令)을 포고하였다. 이로써 프랑스인 선교사 12인 중 9명과 남종삼(南鍾三, 1817~1866)·홍봉주(洪鳳周, ?~1866)·정의배(鄭義培, 1794~1866)·최형(崔炯, 1814~1866) 등 교회의 지도층, 평신도들이 거의 모두 학살당한 것을 필두로 국내신도 8천여 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요행이 여기서 탈출에 성공한 리델(Ridel, F.C.) 신부는 청의 천진(天津)에 있는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Roze, P.G.) 제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조선교회 구출을 요청했다. 이에 프랑스 해군제독 로즈는 조선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결심하고 1866년 10월에 전함 7척을 이끌고 리델 신부와 조선인 신자의 안내로 강화도에 나타나 조선 정부에 프랑스인 선교사 학살의 책임을 물었다. 이것이 병인양요로 프랑스 군함이 조선정벌에 나선다는 정보를 사전에 탐지한 조선 정부는 해안요소마다 무기와 경비를 강화하고 결사항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세의 불리함을 깨달은 프랑스함대는 11월 18일 마침내 퇴각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 위신은 실추되었고 조선의 쇄국정책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프랑스함대의 침략이 천주교인 때문이었다는 이유로 양화진(楊花津, 일명 切頭山)을 새 형장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선참후계(先斬後啓) 형식으로 천주교인을 무수히 학살하였다.

9) 남연군묘 도굴사건과 박해

한편 1866년(고종 3) 7월 미국상선 제너럴서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부근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했다가 평안도 관찰서 박규수(朴珪壽)의 거절에 반감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침몰당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배상금지불과 통상조약체결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흥선대원군은 거절하였다. 1868년(고종 5) 4월 미국은 다시 독일 상인 ‘오페르트(Oppert)’를 내세워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페르트는 두 차례나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한 바가 있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청도 덕산(德山) 가동(伽洞)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파헤쳐 유해를 미끼로 삼아 통상조약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도굴에 실패하자 오페르트는 경기도 영종도에서 다시 통상을 요구하다가 조선수비대의 완강한 방어로 쫓겨났다.

흥선대원군은 남연군묘 도굴사건이 병인박해 때 살아남은 신부 페론(Feron, S)과 일부 천주교인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충남 해미지방(海美地方)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수많은 천주교인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양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고조되었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한층 확고해졌다.

1873년(고종 10) 11월 집권 10년만에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끝이 났다.

이상 여러 차례에 걸친 박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천주교를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교로 낙인을 찍고 천주교도들을 강상죄(綱常罪)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의 배타주의는 유교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단시 했고, 조선왕조가 정교합일주의(政敎合一主義)에 입각해서 정치적 질서와 종교적 질서가 혼동됨으로써 잦은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혼동을 당쟁과 세도정치에도 파급되어 종교를 구실삼아 반대세력을 탄압하게 되었으며, 천주교도의 성직자 영입을 쇄국양이주의(鎖國攘夷主義)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역적으로 가차 없이 처단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렇게 여러 번의 박해를 계속 받음으로 해서 처음 교회를 주도했던 양반계급과 지식층이 물러나고 점차 무지하고 가난한 서민층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입국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바탕으로 영적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처음 사회를 개혁하려던 강한 의욕은 사라지고 현세도피적이고 내세구원적인 신앙으로 변천되어 갔다.

또한 도시에 집중되었던 교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산간벽지로 피신하여 많은 교우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철종조로 접어들면서 천주교는 비교적 평온을 누리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세도정치의 주인공인 안동 김씨는 시파(時派)로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므로 천주교를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입국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교회 서적을 인쇄하여 보급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흥선대원군의 집정 10년 동안 천주교인이라 지목당하지 않기 위해, 무자비한 학살을 피하기 위해 산중으로, 도서지방으로 피해 다니다가 병으로 죽고, 굶주림에 쓰러지는 부녀자와 어린이가 부지기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이 엉뚱하게 희생된 예도 허다하였다. 배교만 하겠다고 하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교인들은 순교의 길을 택함으로써 이 땅에 씨앗이 되어 오늘날 그리스도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

3. 개화기의 천주교

1882년(고종 19)에 미국을 비롯한 구미(歐美) 여러 나라들과의 우호통상조약과 1886년(고종 23)의 조불수호통상조약은 불완전하나마 조선에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조불수호통상조약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프랑스인의 자격으로 개항지에 정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여행증명서였던 호조(護照)만 지니면 조선 내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선교사가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후 교회의 조직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개항지 밖으로의 정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선교사들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에도 정착하여 본당을 건설해 나갔다.

최초의 본당인 서울의 종현본당(鍾峴本堂: 현재의 명동)이 한성부와외 토지소유권 다툼으로 3년만에 승리하여 대성당 건축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리, 원산, 제물포, 부산, 마산, 목포 등 개항지에 잇달아 본당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본당 건설과 더불어 성당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제7대 교구장인 주교 블랑(Blanc, J.)은 종현 구내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수녀들을 초청하였고, 이 무렵 용산에는 신학교 건물이 세워졌다.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북쪽 간도지방과 남쪽 제주도까지 천주교 신앙이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반면에 필연적으로 정부, 특히 지방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교안(敎案)이라 불리는 사건들이다. 교안이란 지방 관리와 지방의 선교사, 지방민과 지방의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조선과 프랑스간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을 말한다.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 조선교회의 당면과제는 조선인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선교사를 위해서는 개항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지구입과 건축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자연히 교안이 수없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일부 선교사와 지방 관리의 월권, 일부교인과 주민들의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도 없지 않았다. 이러던 중 신축교안(辛丑敎案)과 해서교안(海西敎案)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정부와 교회가 모두 반성해야 할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민조약(敎民條約)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교민조약은 1899년(고종 36)에 조선교구장인 주교 뮈텔(Mutel, G)과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체결되어 비로소 조선인에게도 신교의 자유가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선교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지방 본당에서의 선교사들의 정착권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애국계몽운동이기도 하였다. 천주교에서 발간되는 순 한글 주간지 『경향신문(京鄕新聞)』은 1906년에 창간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되기까지 4년간 지속되었는데, 국권(國權)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 시기에 내적개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을 자강운동으로 계몽하고 인도하였다.

천주교의 교육 사업은 처음에 국민교육과 기초교육에 치중하였는데, 1909년부터는 독일의 분도회(芬道會: 베네딕도회)를 초대하여 서울에 시범교육과 실업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와 일본인들의 교육 독점으로 폐교되었다.

4. 일제강점기의 천주교

일제강점기에서의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록 국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에 전교회적

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安重根)의 의거는 국권수호운동의 대표적인 실례로 손꼽힌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한 서상돈(徐相敦)도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다. 안악사건(安嶽事件)에도 안명근(安明根)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이 참여하였고, 105인 사건에도 관련이 되었다.

3·1운동 때에는 교회당국의 절대적 금지에도 서울과 대구의 신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에 앞장섰으며, 황해도 은율(殷栗)의 신부 윤예원(尹禮源)을 비롯해서 강화(江華), 광주(廣州) 등지에서는 천주교인이 만세시위의 주동적 구실을 하였다. 3·1운동으로 인하여 당시 서울, 원산, 신의주, 평양, 공주, 대구 등지의 감옥에 53인의 천주교 신자가 투옥되었고,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의 종교탄압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되어 『경향신문』이 폐관되었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실학교도 폐교 당하였다. 그 뒤 일제는 소위 포교규칙을 재정하여 은연중에 포교를 제재하였고 교회학교의 종교교육까지도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는데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인들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와서 일본에 있는 주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해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황청에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천주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에서 추방되거나 투옥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일제는 1940년대에 이르러 외국인 교구장을 일본인 교구장으로 대체시키고 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였으며, 기타 외국인 선교사들을 구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천주교회는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교구는 크게 발전하여 1911년에는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가 분리되었고, 동시에 조선교구는 서울교구로 개칭되었다. 1920년에는 원산교구, 1927년에는 평양교구, 1928년에는 연길교구, 1937년에는 전주교구와 광주교구, 1939년에는 춘천교구가 창설되었고, 1940년에는 원산교구가 폐지되고 함흥교구와 덕원면속구(德源免屬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교구의 설정으로 새로운 선교단체가 진출하였다. 1920년도에 진출한 미국 메리놀선교회는 평양교구를, 1930년대에 진출한 아일랜드의 골롬바노외방전교회는 광주와 춘천교구를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1910년까지는 주교 1명, 외국인 신부 46명, 한국인 신부 15명, 수녀 59명, 신도수 73,517명, 본당 69개를 갖게 되었다. 일제의 강압통치의 결과 교회의 건물이 징발당하고 각급 학교의 폐쇄 등 갖은 탄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여 1945년 해방되던 해에는 서울, 대구, 평양, 함흥, 연길, 전주, 광주, 춘천 등 8개 교구와 7명의 주교, 2명의 교구장, 신부 234명(한국인 132명, 독일인 54명, 프랑스인 38명, 아일랜드인 10명), 신자 수 18만 명, 성당 160개소였다.

제2절 목포 천주교회의 설립

전라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66년(고종 3)의 병인박해를 피해온 다른 지역의 교우들이 노령산맥줄기를 따라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천주교도들은 1872년(고종 9)의 '나주 무학당(武學堂) 사건'으로 새로운 순교자를 탄생시키면서도 꾸준히 복음전파에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새로 이주해 오는 신자들로 인해 전라남도 지역의 교우촌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82년(고종 19) 이후에는 리우빌(Liouville, 柳達榮) 프랑스 신부에 의해 장성, 순창, 담양의 20여 개 교우촌이 공소로 설정되었다.

1896년(고종 33)까지도 전라도 지역은 전주본당, 되재(升峙)본당, 수류본당 등 북부지역(전라북도)에만 본당 소재지가 있었으며, 남부지역의 공소들은 라크루(Lacrouts, 具馬瑟) 신부가 사목하는 김제군 수류본당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바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8대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프랑스 주교가 전라도 지역을 순방하면서 나바위(羅岩)본당과 목포본당의 신설을 결정하였다. 목포본당 설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남부지역의 공소들이 김제군 수류본당과 너무 멀리 있어 사목에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가, 1897년에 개항 예정인 목포지역의 발전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897년 5월 8일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아천리 공소를 사목하던 프랑스 신부 드에(Albert Deshayes, 曹有道)를 목포본당 초대 주임으로, 베르모렐(Vermorel, 張若瑟) 신부를 나바위본당 초대 주임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뮈텔 주교가 목포 개항 소식을 미리 알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크게 승리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청의 간섭 없이 개항을 추진코자 1894년 7월 27일에 조선과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체결하고, 동년 12월에 2주 동안 경상·전라 양도의 서남부 해안을 실측조사하고 목포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일본이 목포를 개항장 적지로 선택한 것은 ① 영산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소비시장까지 기선으로 직접 화물의 운반이 가능하며, ② 광주·능주·나주 등 대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어 화물의 집산장으로 적합하고, ③ 전라도의 쌀을 운반해 가기에 가장 편리한 항구였기 때문이다.⁰⁴⁾

이렇게 신문지상에 목포의 개항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주재 외교관, 특히 미국, 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천주교 전파의 총사령인 뮈텔 주교는 목포 개항장 진출을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개항지의 요충지를 선점하고자 하였다.

드에 신부가 목포 천주교 주임신부로 임명받던 1897년의 목포지역은 100호도 안 되는 마을이 있었을

04) 배종무, 「목포개항」, 『목포개항사연구』, 느티나무, 1994; 『아사히신문』 1895. 07. 07. 기사 참조.

뿐 천주교 신자는 한 명도 없었다. 드에 신부는 순창군 쌍치면 아천리 공소에 임시 거처하면서 목포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로 하고 라크루 신부로부터 순창, 정읍, 장성지역의 공소들을 인수받아 공소 순방을 시작하였다. 1898년 봄 판공을 끝낼 때까지 드에 신부가 순방한 공소는 순창, 정읍, 장성, 담양, 함평, 태인, 무안 등지의 26개 공소였다.

1. 목포개항 발표와 무안감리서의 설치

1897년 7월 4일 조선 정부는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의 사신 앞으로 동년 10월 1일을 기하여 목포와 진남포 항구를 외국과의 통상을 위하여 개항하고 외국인의 거류와 무역을 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관할지 지방행정을 담당할 무안항감리서(務安港監理署)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 무안항 초대감리로 진상언(秦尙彦)이 임명되어 1897년 9월 18일부터 업무개시에 들어갔다. 직원은 감리 포함 16명이고 사무소는 목포진(木浦鎭) 폐청사를 수리한 임시청사에서 1902년 9월 북교동 전 신안군청자리 신축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이곳 구 만호청(구 목포진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영사 또한 1897년 10월 24일부터 1898년 2월 일본인 조계지(租界地) 대의동에 영사관 임시청사 신축 이전 시까지 이곳 만호청사 별관을 수리하여 영사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그때 목포에는 목포진 폐청사 말고는 큰 건물이 없었다. 무안감리서의 업무개시와 더불어 1897년 9월 22일 ‘목포 통상항 10리 이내 우리나라 인민의 토지와 가옥을 외국인에게 매매할 때의 장정(章程)’이 고시(告示)되었다. 즉 목포항 조계지 경계에서 직선으로 10리(4km) 안에 있는 토지가옥을 외국인이 매입코자 할 경우 관계문건을 구비하여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드에 신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드에 신부는 쌍교리(지금의 북교동) 근방에 임시성당(후에 불란여학교)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26개 공소를 순방 관리하면서 틈틈이 노력한 끝에 1898년 4월 24일 무안군 삼향면 산정리 산 97번지 외 수필지의 토지와 임시 거처할 초가를 매입하여 우여곡절 끝에⁰⁵⁾ 1899년 6월에 무안감리서의 매매승인을 득하였다. 드에 신부의 철저한 규정준수와 명료한 다툼, 그리고 주한 프랑스 공사의 간단없는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쾌거였다.

드에 신부는 1898년 7월 2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아천리 공소에서 새로 수리한 초가 한옥으로 이거를 희망하는 아천리공소 신자들과 함께 거처를 옮겼다. 아천리 신자들은 새로운 성당 신축 시까지 쌍교리 임시 성당에서 전교와 신자관리에 당하게 했을 것이다.

05) 1898년 3월에 일본영사의 요청으로 일본인 영장지로 지정되었으니 토지매매를 허가할 수 없다는 감리서의 주장에 대한 다툼.

2. 성당부지매입에 따른 교안

목포천주교회 조유도(曹有道, 알베르토 드에 Albert Deshayes) 신부는 1898년 4월 24일 천주교회 성당부지로 산정리 산 97번지의 여러 필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고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가 1897년 9월 22일에 제정, 공포한 「토지거래에 관한 규정[木浦通商港十里內我國民土地與家屋售賣於外口人民章程]」에 의거 무안감리서에 토지소유권 이전 허가를 신청하고 지계(地契: 등기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무안감리서 당국은 신청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계 발급을 불허하는지라 조유도 신부는 저간의 사정을 프랑스 공사 갈림덕(葛林德, Plancy, C.)에게 보고하고 일이 성사되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무안감리서가 조유도 신부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땅은 원래 무결토지(無結土地: 비과세지)로서 여기저기 민총(民塚)이 산재한 시장(柴場)이며,
- ② 이 땅을 1898년 3월 목포항 주재 일본영사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와 합의하여 일본인 영장지(營葬地)로 결정하고 영장지 표지를 세우겠다고 이미 보고된 지역이니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프랑스 공사 갈림덕은 “프랑스 선교사 조유도가 목포항 조개지 밖 10리 이내의 약간의 전토(田土)와 산록(山麓)을 매입하고자 귀 감리로부터 허락을 받고자 하니 신속 처리를 요망한다.”는 요지와 함께 불허 사유를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다.

- ① 이 산지를 판 자는 누대 켜 이를 전해 받아 산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해왔고 허다한 분총(墳塚)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권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땅이 무결토지라 하나 귀국의 산은 모두 무결토지이며 사람이 거주치 않는 곳이 반이 넘는다는데 이는 산마다 그러한 실정이니 인민(人民)이 사유재산으로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 ③ 만일 귀 감리가 이 산록을 일본인 장지로 지정할 계획이 있었다면 마땅히 서둘러 산의 주인과 상의하여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매도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산주인의 권리는 이미 조유도에게 돌아왔으니 청컨대 감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조유도에게 이 산록의 문계(文契)를 발급하는 것이 옳습니다.⁰⁶⁾

06) 『무안보첩(務安報牒)』제1책, 1899년 4월 25일자 질품 제18호.

이렇듯 지계 발급 허가를 강력히 주장하는지라 무안감리는 프랑스 공사의 청구 내용과 처리내용을 외부(外部)에 보고하고, 프랑스 공사와 협의한 후 처리방향 지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외부의 1899년 4월 28일자 지령 내용을 “일본인의 영장지 계획 수립일자(1898년 3월)와 조유도가 지계 발급을 신청한 날짜(1898년 4월 24일)의 선후가 분명하니 이 뜻을 다시 회답할 것이요, 또 이미 사드렸다고 하였은 즉 땅을 판 자를 불러 돈을 반환토록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무안감리로서는 일본인 영장지 입지 지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마땅히 선행했어야 할 조치로 후보지 지주와 사전 협의를 결하였고, 일본인 영장지 예정지임을 공시하지 않은 하자를 범한 것이다. 결국 외부의 훈령(1899년 6월 제40호)을 받고 재목 일본영사와 협의 하에 타 후보지를 물색 끝에 쌍교동 원편에 위치한 죽교동 80번지 지선(유달산 자락) 구릉 1개소 15,800㎡를 일본인 영장지로 합의, 지정 고시함으로써 목포천 주교회 성당부지로 조유도 신부가 매입한 산정리 산과 그 밖의 전토에 대한 토지매매 허가는 적법 처리되었다.⁰⁷⁾

3. 천주교 목포본당신부 폭행사건

1901년 7월 자은도(慈恩島)의 천주교인 9명이 지도군에서 파견된 지방관속 등 10명에게 구타당했다. 특히 교인들을 따로 잡아 제주사건⁰⁸⁾을 거론하면서 위협하고 구타하였다는 것이다. 이 밀고를 접한 조유도(趙有道, 드에) 신부는 직접 자은도를 방문하여 교민들로부터 정규세금이나 호포(戶布) 외에 각종 역사(役事)에 드는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수탈을 일삼는 토착세력인 두민화(頭民華)와 관원에게 저항하다가 폭행당했다는 전말을 듣고 주민들의 납세영수증과 군청의 수납문부를 대조하여 기백 낭이 가산 징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납세문제로 교민들과 수세(收稅) 관속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던 비

07) 프랑스 공사 갈림덕이 조유도 신부의 보고에 의거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방문, 프랑스 조계지 매입과 관련 강력히 항의함에 외부에서 무안감리에게 훈령 40호(1899. 06. 13.)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처리, 지시하였다. “1898년 3월 일본인 영장지 후보지를 감리서와 일본영사가 회동, 현장조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선교사 조유도는 1898년 4월에 지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였는데 그 해 9월경 일본영사가 영장지 후보지에 경계를 명시하려 함에 일본영사 가토[加藤]에게 말하여 프랑스 조계지 경계에서 벗어난 곳에 표시케 함으로써 일본인 영장지 예정지와 프랑스 조계지와는 하등 영향이 없다. 그런데 이 땅이 비과세 공용지라 하고 처리를 미루니 취지대로 지계 발급해주시시오 하거를 살펴보건대 프랑스 공사의 할책(詰辦)이 확실히 근거가 있고, 귀서의 보고 내용이 종종 부합하지 않는 까닭에 이에 훈령하니 그 땅을 다시 조사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타결하고, 처리상황을 속히 밀고하라.”(『무안보첩, 제7책(訓令冊), 훈령 제40호, 1899. 06. 13. 議政府外部大臣 朴齊純).

08) 1901년 5월에 제주 유림(儒林)의 좌수(座首) 오대현(吳大鉉) 등 일당이 천주교인의 토지 안에 전래되어 왔던 신목(神木)과 신당(神堂)을 교인들이 전부 제거했다는 이유로 천주교인에 대한 적개심이 높더니 정부가 배치한 봉세관(捧稅官)의 무리한 과세와 비행이 또한 극심해지자 제주출신 대정군수(大靜郡守) 채귀석(蔡龜錫)과 손을 잡고 상무사(商務社)라는 단체를 조직, 도민(島民)을 선동하여 봉세관과 천주교도에 대한 항쟁운동을 일으켰다. 일본인 어부들로부터 총기(銃器)를 입수한 오대현 등 도민들에게 쫓겨 제주읍성 안으로 긴급 피난한 신자들이 성을 지키면서 도민봉기군과 대치, 항쟁했으나 5월 15일 오대현 일파는 성 밖의 교인 200여 명을 색출하여 죽이고, 5월 28일 성을 함락시킨 후 달아나는 교인들을 500여 명이나 죽였다. 한편 프랑스 신부 2명은 군수 김창수(金昌洙)의 보호로 무사하였고 도민봉기군도 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것은 천주교인들이 성내의 무기고를 부수고 꺼낸 총으로 항전했기 때문이었다. 이 교난은 한국천주교가 겪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지막 교난으로서 원시적이며 봉건적인 시대로부터 근대화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시세조류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비극이었다(이홍식, 『국사대사전』, 대영출판사, 1977).

금(飛禽), 도초(都草)에서 자신이 직접 관속들을 닦달했던 전례가 있던 터라 도서지역 교민과 관련되는 현 안문제들을 직접 협의, 조정하기 위해 1901년 9월 3일 지도군수 김영년(金永年)을 방문하여 비금, 도초, 자은도의 문제점들을 건의하여 군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대화를 계속하고자 다음날 오전에 지도군수 김영년을 방문했다가 조유도 교사(敎士)의 수행원 복사(卜師) 이기환(李琪煥), 종인(宗禪) 김의수(金椅守), 종인 임성덕(林聖德) 중 이기환이 연로한 김영년 군수에게 불손한 언사를 썼다가 언쟁이 벌어졌다. 교회 측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김군수는 “지도도 제주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무리들이 이 관아의 문에서 나가자마자 주민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신부와 복사를 위협하였고, 이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 있던 관속들이 종인 김의수를 방에서 끌어내어 구타하고 향장(鄕長) 황건주(黃健周)는 형리(刑吏)와 관예(官隸)를 불러 모이게 하여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기환을 때려죽이라 호령하니 50~60여 명의 관속 관예들이 이기환, 김의수, 임성덕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신부 조유도 교사의 보호요청에도 김영년 군수는 모른 채 하다가 오히려 신부수행원들을 가두어버렸다.

지도군에서의 교인가타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조교사는 목포로 돌아와 천주교조선교구장 뮈텔주교에게 전보를 쳤다. 주교는 이 전보를 받은 다음날인 9월 6일에 플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 프랑스 공사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플랑시 공사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이 사건의 전말을 무안감리(務安監理)에게 조사,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9월 11일에 무안감리가 파견한 순검(巡檢)이 지도군에 들어와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향장 황건주와 이방(吏房) 등 6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조교사가 타박상 치료차 상경하는 바람에 소송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안감리는 범인 6명을 석방시켜버렸다. 피해당사자인 조교사가 2개월간 서울에서 치료를 마친 후 귀국했으나 무안감리는 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1902년(광무 6) 5월 12일 외부(外部)로부터 사건처리 독촉공문을 받고서야 혐의자 향장 조건주, 이방 김원명(金元明), 형방(刑房) 나도경(羅道卿), 천사운(千士雲), 순교(巡校) 이동실(李東實), 통인(通引) 김갑재(金甲才)를 추적하여 전원 압송하라고 지도군수에게 하명하였으나 장기출타 및 도피 등 사유로 황건주, 김원명 나도경만 잡아왔다. 이들을 신문한 끝에 「대명률투구편구제사(大明律鬪毆編毆制使)」 및 「무안감리관장조(務安監理官長條)」 제규정에 따라 황건주는 징역 2년 반, 김원명과 나도경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교사가 요구하는 치료비 1,000원을 본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1902년 9월 23일에 처리 결과를 외부에 보고함으로써 지도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한편 프랑스 선교사 조유도(趙有道) 신부는 수감자 황건주 등 3인의 석방을 건의하였고 무안감리는 본 건을 법부(法部)에 상세히 보고하라는 외부 지시가 있는 후 원고 조유도 교사나 피고인 가족 등의 별도 탄원 등 관계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처되었다고 판단된다.

4. 목포 성당 건립

목포로 진출한 드에 신부는 새로 매입한 산정리 산 97번지 별망평산(別望平山) 정상에 제물포(현 답동) 성당을 모방하여 1898년 7월 15일 착고, 1897년 초에 성당 겸 사제관을 벽돌 양옥으로 건립, 완공하였다. 목포에서 처음 세워진 벽돌조양옥이었다. 이 무렵 목포는 개항장 건설과 병행하여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모여들었다.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주하는 등 신자수가 늘어났다. 이때의 목포 관내 신자수는 22개 공소에 1,238명이었다.

이 무렵 뒤편 주교는 1897년 12월에 서품되었으나 병으로 서울에 요양 중이던 이내수(李迺秀, 아우구스티노) 신부를 요양 차 드에 신부의 보좌로 임명하였다. 이내수 신부는 1898년 8월에 목포로 와서 드에 신부를 보좌하다가 1899년 7월에 몽탄면 우적동(牛跡洞, 사창리)본당으로 전속 사목활동에 임하였고, 1900년 12월 20일 목포본당에서 사망하였다. 이후 우적동본당은 김승연(金承淵, 아우구스티노) 신부, 드뇌(Deneux, 全學俊) 신부에 이어 1904년부터 투루뇌(Tourneux, 呂東宣) 신부가 부임, 활동하다가 1907~1908년까지 본당을 나주군 노안면 남산(南山)과 계량(桂良, 현 노안본당)으로 이전하면서 목포본당 관할 공소로 격하되었다. 이로써 계량본당은 목포의 첫 번째 자(子) 본당이 되었다.

드에 신부는 1898년부터 이미 본당 신자들로 매교회, 성의회, 성모회, 성모통고회, 예수성심회 등을 조직하여 신심함양과 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축성당 건립 이듬해인 1900년부터는 도서지방 전교를 시작하여 지도군(智島郡) 지역의 안창도, 도초도, 비금도, 자은도, 압해도 등지에 공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01년 이후부터는 육지공소의 순방은 몽탄면 우적동 본당신부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로 도서지방을 순방하였는데, 드에 신부가 출타한 목포에서는 목포천주교회 사무장과 교민과의 의견충돌로 인한 고발사건⁹⁹⁾이, 1901년에는 드에 신부와 수행원이 지도에서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천주

99) 본항(本港) 경무관 김순근(金順根)의 보고에 따르면, “올 6월에 성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시골백성들을 결박, 구타하는 등 법외반 사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교회(聖敎會)가 자비로움을 빙자하여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모두 끌어들이고, 무리를 만들어서 일을 꾸미는 것이 사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며, 역지로 전도에 참여케 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차 고발자 문채빈(文才彬)의 고발(言訴)에 의하면 문채빈의 아우(10여 세)를 꺾어 교회에서 수개월간 잡아두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있어 모자간 생이별 상태이라, 이에 항의하는 고소인 문채빈을 교회 사무장 고문제(高文濟)가 교회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함부로 중형을 내렸으며, 이런 사실을 조사 확인코자 파견된 순검에게 어린이는 드에 신부님 귀가시 귀가 조치 예정이며, 문채빈은 성교인인데 잡당한 일에 관계하여 성교회의 명예를 훼손한고로 성교회로부터 다스림을 당하였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죄를 범하면 교회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다른나라 사람의 괴이한 행동은 묻지 않는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인 고문제의 악습은 윤리를 배반하고 법을 업신여긴 일이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임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 새로운 죄악이 확산되어 제도를 어지럽힐 것이니 이러한 사실을 서울 주재 프랑스 공관에 알려서 목포 천주교 드에 신부에게 알게 하고 고문제의 불법행위를 엄히 징계하여 이후 폐단을 사전 방지케 하는 조치 요망합니다.” 라고 보고하였는데 외부의 답변은 이러하다(“무안보첩, 3권, 報告 61號, 1900. 08. 무안감리가 외부대신에게 목포천주교회의 불법 부당행위 발생 보고), 천주교인도 우리 국민이니 스스로 판별케 할 것이요. 만약 막힘이 있거든 드에 신부의 일을 감리서에서 서울 주재 프랑스대사관 관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고문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히 징계하여 금지시킬 것(“무안보첩, 3권 指令 71號)이라는 지시를 받은 경무관은 총순(總巡)을 시켜 범법자 고문제를 연행했는데, 목포 천주교 드에 신부는 사무장 고문제 체포과정에서 무안항 경무관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서울 주재 프랑스공사에게 알렸다. “본인이 외출하고 없을 때 무안항 경무관 김순근(金順根)이 순검(巡檢)을 본인 집에 보내서 집안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에 프랑스공사 ‘노비부(盧飛飛)’는 “순검이 제멋대로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체포해가는 것은 각국 조약 제3관 9조의 내용에 위배됩니다. 번거롭겠지만 귀 대신이 엄히 조사하고 징계하여 이후로는 이 같은 폐해가 없도록 요망한다.”는 요지로 외부대신 박재순 앞으로 공한을 보냈으며, 외부(外部)에서는 “조선인이 본국에서 법으로 금한 죄를 타국의 상민

공교회의 신앙 정착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목포본당의 설립, 정착을 위해 헌신, 봉사하던 드에 신부가 1909년 5월 1일 뮌텔 주교를 돕기 위해 서울주교관으로 전임되면서 나주 노안 계량본당에 재임하던 투루뇌 신부가 목포본당 2대 주임으로 전임되었고, 계량본당으로는 카다스(Cadars, 姜達淳) 신부가 보임되었다. 당시 전라남도 지역 중에서 목포 인근과 도서지역은 목포본당(18개 공소, 916명), 장성과 나주 일대는 계량본당(9개 공소, 291명), 그리고 장성과 순창 일부 지역은 정읍의 신성리(新城里)본당과 김제의 수류본당에 속해 있었다.

1911년에 대구교구가 조선 교구에서 분리, 설정되면서 목포본당은 대구교구 관할에 속하고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는 이듬해 5월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목포본당의 투루뇌 신부를 경북 칠곡의 가실본당으로 전임시키고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로 내정되어 있던 샤르즈뵈프(Chargeboeuf, 宋德望) 신부를 3대 주임신부로 보임시켰다. 이때가 1912년 5월이고 신자수는 250명을 헤아렸다. 목포의 인구가 늘어남과 병행하여 신자수로 많이 늘어났다. 현재의 건물로는 협소하여 기존건물 북편 별마산 최정상에 100여 평 규모의 벽돌로 양철지붕 십자성당을 계획하여 1913년 8월 4일 드망즈 주교의 집전으로 정초식을 갖는 동시에 언덕위에 세운 높이 5.5m의 대형 십자가와 ‘성 파트리치오’를 주보로 한 종(鐘)의 축성식도 거행하였다. 이후 성당은 완공되어 12월 25일 ‘성가 광영(성 십자가 현양)’을 주보로 분헌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주보를 정한 이유는 그 해가 ‘밀라노 관용령’ 반포 1,6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1914년 5월 3일 샤르즈뵈프 신부가 성 유스티노 신학교 교장으로 전임되면서 마산포에 있던 카넬(Canelle, 間弘模) 신부가 4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으나 그 해 10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동원되어 귀국했다. 이후 목포본당은 제주 하논본당(서귀포본당의 전신)의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가 겸임했다가 1915년 6월 7일자로 5대 주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200여 명이던 신자수가 타케 신부의 눈부신 노력 끝에 400여 명으로 늘었고, 무안 소흑산도,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하조도, 무안군 자은도·도초도·안창도·암태도, 함평 신광 범성면 상하치, 진도 지산면 인지리·소둔리, 해남군 문내면 예낙리, 무안 일로면 상신거리, 몽탄면 사창리 등 장명만 남아 있던 공소를 역방 채신시켰다. 타케 신부는 또한 식물학자로서 당시 우리나라 식물을 유럽에 소개했고 일본인들도 많이 배워가는 등 우리나라 식물학계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다.

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저지르면 지방관이 그 나라 영사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그 범인의 양해 하에 그 집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번에 프랑스공사가 질책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무안감리에게 지시가 있었으나 드에 신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사건화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무안보첩』, 3권 훈령 99호, 1999. 10. 29.).

1922년 9월 24일에는 주재용(朱在用, 바오로) 신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본당 주임을 겸하여 부임하였다가, 1926년 5월부터 목포본당만을 맡았다. 그는 본당건물 아래편에 비탈을 깎아 85평 규모 2개 교실을 신축하여 성심소학교(聖心小學校)를 설립하였고 초대 교장에 이성만(李性萬, 이나시오) 보좌신부를 임명하였다. 학교 주변과 운동장 정리 조성으로부터 2개소의 돌층계까지 신자들의 열과 성의로 완성했다. 이 성심소학교는 1944년 5월까지 존속하였다가 신사참배거부 등을 이유로 폐쇄 당했으나 광복 이후 1949년까지 성심고등공민학교로 존속해오다가 6·25전쟁으로 완전히 폐교됐다. 주재용 신부는 1931년까지 본당에 재임하면서 교리교사회와 복사회 등 편신도 단체를 활성화하고 전교(傳敎)에 노력하여 1926년경에는 신자수가 700여 명에 이르렀다.

1931년 5월 10일에 드망즈 주교는 전라도 지역을 감목대리구(초대 감목대리 김양홍 신부)로 설정하였고, 1933년 7월 6일에는 교황청포교성령에서 전라남북도 감목대리구 분리를 승인하면서 전라남도과 제주지역의 사목을 고클롬반외방성교회에 위임하였다. 이때 초대 전라남도 감목대리로는 애란인(愛蘭人, 아일랜드) 맥폴린(Owen M'cpolin 林) 신부가 임명되었으며, 1937년 4월 13일 광주가 지목구로 승격, 설정되면서 초대 지목교구장으로 임명되어 목포에 착좌하였으며, 전라감목대리구 관리소 겸 주교관을 신축, 운영케 되니 목포본당은 감목대리구 주교좌 성당이 되었다.

1934년 3월 8일 제8대 주임으로 모나간(Patrick Monaghan 牟) 신부가 아일랜드인으로 처음 부임하였는데 이때의 신자수는 921명이었다. 모나간 신부는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 발발과 동시에 총독부에 의해 체포, 감금되기까지 7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전교에 힘을 기울려 그 결과 신자수는 1,80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성체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맥폴린 교구장을 비롯해서 외국인 신부들은 모두 경찰에 감금되었거나 투옥되었다(Owen M'cpolin 林, Patrick Monaghan 牟, Harold Henry 玄, John O'brien 吳).

1942년 2월에 맥폴린 교구장이 상미하고 이듬해 2월에 일본인 와키다 이사고로 신부가 교구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양신부들에게는 전교를 규제하고 신자들과의 접촉과 출입을 제한하였다. 일본인 교구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1943년 2월 7일 교구청이 목포에서 광주시 북동 33번지 북동성당으로 이전되어 갔다. 한편 목포본당은 8대 모나간 신부가 체포된 후 9대 김재석(金在石, 요셉) 신부, 10대 박문규(朴文奎, 미카엘) 신부, 1944년 12월 1일 11대 최덕홍(崔德弘, 요한) 신부가 차례로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이 무렵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접어들어 일본군은 패망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태평양과 남양지방에서 연전연패(連戰連敗)하였다. 북쪽지방에서는 관동군의 대병력이 중국과 러시아군에 밀려 일본의 육상병력이 한반도로 쫓겨 내려오던 때였다. 일본의 본토는 미공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어가던 무렵이었고 최후의 일전을 각오한 일본군은 1944년 말경부터 목포에 진주하기 시작하여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을 징발하여 일본이 항복하던 때까지 병력주둔과 군사훈련장소로 이용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징

병 또는 징용으로 데려가 일선에서 총알받이로 삼았고, 후방에서는 군사시설 등에 강제노동을 시켰다. 따라서 중요 공장마다 일꾼이 없으니 부녀자들을 동원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타면공장에서 일을 시켰으며 중학생들은 송정리 비행장 노면정리와 도로정비에 동원되었다. 시내거리는 일본군의 오토바이나 말을 탄 군인들이 달렸고 긴 칼을 찬 군인들이 거리를 누볐다. 교실을 빼앗긴 학생들은 야외에서 수업을 했고 날마다 방공연습과 대피훈련이 거듭되었다. 시장에는 생필품이 부족했고 암거래가 성행했으며 김이나 오징어, 소금 같은 전매품은 암거래하다 적발되면 남녀불문 약식재판으로 무자비하게 형무소(교도소)에 끌려가야 했다.

1945년 5월 28일 일제는 천주교 목포본당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모두 징발함과 동시에 그간 주교관에서 연금 상태에 있던 골룸방회 성직자 11명을 강원도 홍천으로 이주, 연금시켰다. 천주교신자들의 미사는 시내 남교동 소재 식당건물인 국취관(菊翠館) 2층을 빌려 봉헌케 되었다. 이날부터 하루 세 번씩 울리던 청아한 천상의 종소리가 멈추었다. 미군의 공습경보가 빈번해지더니 광주 출발 목포행 통학열차가 무안 몽탄역에서 미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원간에 미군이 목포에 상륙할지 모른다는 루머가 파다해졌다. 6월에 조선총독은 「도시주민소개령(都市住民疎開令)」을 내렸다. 각급 학교는 무기휴교에 들어갔고, 농촌이나 도서지방의 연고자들은 연고지를 찾아 뱃짐을 지고 권속과 함께 기차역이나 선박대합실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머지않아 목포시내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초조한 생각 때문에 사람마다 불안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일본이 아닌 흰옷 입은 조선사람.”이라는 자긍심으로 일루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연고지가 없는 사람은 집단소개지를 선정하고 목포부내 구역별로 무안, 나주, 화순, 강진, 영암, 해남 등지로 피난지를 배정해서 그곳 학교 교실이나 강당을 빌려 합숙케 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전황은 완전히 불리해져서 목포항에서 쌀이나 면화 등 군수품을 싣고 출항한 선박들이 미공군의 피격을 받고 침몰되는 사태가 빈발하기 시작했다. 그중에 4,800톤급 Pluto호가 미곡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목포외항에서 미공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쌓인 채 재 입항 삼학도 앞바다에서 좌초되었다. 미공군기가 대낮에 버젓이 날아가도 이를 격퇴할 수단이 일본군에는 이미 없었다. 강약(強弱)이 부동이라 결국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성당을 되찾았다. 맥폴린 신부가 3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광주로 옮겨졌던 교구청을 원상태인 목포시 산정동 97번지로 옮겼다. 맥폴린 교구장은 옥중생활에서 득병한 결과 1947년 11월 교구장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갔고, 하롤드 핸리(미국인) 신부가 교구장 서리로 부임하였다. 1949년 11월 브랜난 안 몬사놀(MSGR, Patrick Brennan) 미국 신부가 제4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였다. 목포본당은 1949년 2월에 김재석 요셉 신부가 부임했고, 그해 가을 고 도마(Phoman Cusack) 아일랜드 신부로 바뀌었으며, 보좌신부로 오 요한(John O'brien) 신부와 한 바르시리오(Lohan) 신부가 부임하였다. 1949년 8월 24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처음으로 본당에 진출하여 천주공교회 목포본

당은 바야흐로 규모를 갖춘 대성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1950년 6월 26일 6·25전쟁으로 인해 천주공교회 목포본당은 또한번 시련을 겪게 되었다. 성당과 사제관, 그리고 교구청은 북한 인민군의 막사로 징발되었고, 1950년 9월 24일 안 바드리시오(Brennan 安) 몬시뇰 교구장과 고 도마(Cusak 高) 본당 사제, 오 브라이언(J.O'brien 吳) 사제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끌려갔으나 동년 8월경 대전 근처에서 피살되었다는 소문만 있을 뿐 행방을 찾지 못했다.

1950년 10월 현 헨리(Harold Henry 玄, 미국) 신부가 다시 교구장 서리로 취임하고 본당신부로 안 토마스(Thomas Moran 安) 신부가 부임하였다. 당시 신도 수는 3,000여 명을 헤아렸다. 현 헨리 신부는 6·25전쟁 직후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협력기구 N.C.C.W(국제카톨릭부인회)와 A.I.D(국제개발처)의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당시 목포시장 하동현(河東鉉)으로 하여금 상수도시설 견학차 미국시찰을 주선하였고, 나주에서 목포까지 상수도시설사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성 골롬반 병원, 성신 간호대학, 마리아회 고등학교 등을 목포에 유치하여 목포시민과 권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천주교의 저변확대에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5. 목포카톨릭병원의 47년

1) 성 골롬반 병원 설립 및 기반조성 과정

1954년 골롬반회 소속 현 하롤드 주교가 제5대 천주교 광주교구장에 취임하면서 아일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던 성 골롬반 수도회에 목포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알리고 의료선교사업에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목포의 의료기관 형편은 1904년에 일제가 설립한 목포시립병원(22병상)이 유일한 병원급의 의료기관이었고 몇 안 되는 단과위원이 고작이었던 때였다. 1955년 3월 골롬반수도회 수녀들이 목포시 산정동 97번지 교구청 부지에 '성 골롬반 진료소'를 개소하였다가 그해 7월 5일 '성 골롬반 병원'으로 정식 개원하였다. 설립 이듬해인 1956년 6월에는 당시 가장 심각한 난치병이던 결핵환자 전문 병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목포를 비롯한 인근 군민과 특히 도서지역 주민의 결핵퇴치에 앞장섰으며 초대 병원장 앤다 수녀는 수도자와 의사의 신분으로 외국교회의 원조 확보와 지역민을 위한 구호사업차원의 무료 진료를 적극 전개하였다.

2) 간호전문인력 양성 위한 간호학교 설립

1966년 4월 13일에는 병원의 규모가 확대 성장함에 따라 부족한 간호 인력을 자체 양성하고자 '학교법

인 골롬반 수녀학원'을 설립하여 '성 골롬반 간호학교'를 개설하였고 초대 이사장에 현 대주교가 추대되었다. 병원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1968년에는 138개 병상을 갖춘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했다. 2000년 3월에는 '목포가톨릭대학교'로 변경,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를 갖추게 되었다. '병원은 치유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여 사랑과 박애, 봉사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 선교사업에 일익을 담당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와 의료혜택의 사각지역인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무료진료를 적극 전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복음적 선교 역량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로 이 지역에 진출한 골롬반수도회의 노력으로 1989년 말에는 '성 골롬반 병원'의 규모는 발전을 거듭한 끝에 6개 병동에 연건평 2,783평, 306개 병상을 갖추고 7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하였고, 324명의 직원(의사 41명, 간호사 161명, 의료기사 20명, 행정 및 기술 41명, 기타 61명)이 연간 263,026명(1일 813명, 외래 166,896명, 입원 96,130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88년에 지역 최초로 전신용 컴퓨터 단층촬영기의 도입 등 최신 의료장비와 임직원의 대폭 확충이 이루어졌다.

3) 골롬반 수녀회의 철수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역 내 소규모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증과 생활여건의 향상은 의료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골롬반수도회가 초기 진출 시에 의도했던 사회봉사적 진료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환자의 진료수준 향상으로 보다 선진화된 의료기술 제공과 시설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방대한 시설에 인력관리상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수녀회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1990년 1월 초기 진출 시 토지, 건물 등 병원 일체의 기반을 제공한 광주대교구에 병원사업을 완전히 인계하였고 철수 후 현재까지 목포지역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4) 의료경쟁시대에 들어 선 가톨릭병원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과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골롬반 수녀회가 철수하고 광주대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1990년대 초는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비수련 진료과를 포함한 외래진료과의 확장이 불가피하였고 시설 및 의료장비의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했다. 1990년대 중반에 목포한국병원과 중앙병원 등 4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이 생기고, 무안병원(281개 병상), 해남병원(216개 병상), 진도한국병원(54병상)이 뒤따라 생겼다. 바야흐로 의료시설이 기업화되고 경쟁체제를 갖추어가던 시기에 1993년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97년 말 IMF 후유증과 공급과잉 상

태에 이른 의료환경과 무리한 의료정책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개선책으로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안'을 용역회사(가톨릭대 산하 병원문제연구소)로부터 제시받았다.

5) 경영을 악화시킨 요인

IMF 이후 MRI 등 외국에서 도입된 의료장비들에 대한 환차손의 누적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방사선 필름 등 수입 의료소모품들에 대한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품을 구매할 원가대로 이윤 없이 보험에 청구하는 제도로 연 20억 원 이상의 매출감소를 가져왔다. 2000년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제도는 전문약사를 보유하고도 약을 조제할 수 없어서 외래 진료 수입의 20% 이상이 감소했고, 의원급 병원 개업이 급증하면서 환자 감소와 이직하는 봉직의사들이 늘어났으며 잔류의사들에 대한 상대적인 고액연봉 부담 등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인 진료와 무료봉사진료를 병행하면서 적자요인을 사전에 신속, 과감하게 척결할 경영전략 부재도 경영악화의 요인이었다. 2000~2001년간의 연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지출 비율은 48.4~62%에 도달, 전국 중소병원의 평균 40.6%를 상회하여 적자만 늘어나는 경영한계에 도달했다. 법인의 자체감사 결과 경영위기를 진단하고 가톨릭병원문제연구소에 경영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축소지향적 병원구조 개선대안을 제시받고 전 직원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갖고 노동조합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 직원 57%의 동의를 얻어 총 8회의 협의를 갖고 구조조정 원칙과 정리하고 회피를 위해 2차례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합의, 희망퇴직자 59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20일부터 임금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후의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희망퇴직자 모집이 중단되었다.

6) 장기불법파업

2002년 4~5월 사이에 병원은 경영개선방안을 조합 측에 제시하고 협의타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노조는 노사협의체가 아닌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더니¹⁰⁾ 5월 24일에는 5월 27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최종입장을 통보함과 동시에 집단휴가원을 제출하자 병원 측은 이를 반려하고 사전 허가 없는 집단휴가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으나 중환자실, 응급실, 수

10) 구조조정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시행하는 법이 보장하는 경영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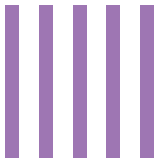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술실, 인공신장실 등 특수분야 조합원까지 동참하는 집단행동이 병실에서, 역전광장에서, 교구천 앞에서, 지역민노총단체와 연계투쟁 병행 농성, 전단지를 살포하고 병원 측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지라 병원은 이미 정상운영이 마비된 실정이었다. 2002년 폐업 직전까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약 2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후 폐업 시까지 35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입해야 했다. 그 결과 폐업시점인 2002년 9월 18일 기준으로 병원의 재무상황은 부채가 자산을 54억 이상 초과하여 실질적 부도상황이었다.

7) 병원사업의 포기와 폐업

결국 2002년 9월 11일 법인이사회에서 병원 처리방안을 논의 끝에 병원사업의 포기와 폐업을 결정하고 전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9월 17일까지 입원환자들에 대한 이송조치를 완료하고, 장비와 물자를 반납한 후 전 직원을 퇴직시켰다. 그리고 9월 18일부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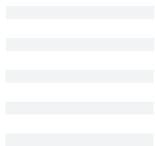
1950년대 중반 광주대교구가 골롬반수녀회의 도움으로 열악했던 목포지역 의료 환경에 기여한바 공로는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병·의원급의 증설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료사업의 무한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도 불리한 위치에서 수익은 점차 떨어지고 적자폭이 늘어만 갔다. 이러한 경영 악화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와 단체행동으로 협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의료사업은 이제 더 이상의 사회구호사업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이나 국가가 감당해야할 몫이 된 것이다. 비록 교회가 병원운영을 폐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채산성 없는 사업을 미리 척결하지 못한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정기조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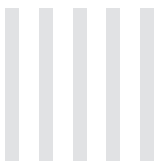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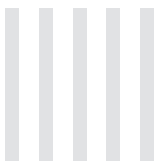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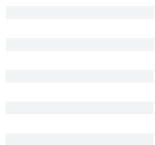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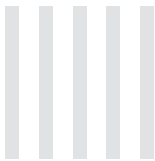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제1절 복음의 시작부터 해방까지(1894~1945)

김양호 |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제2절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1945~2017)

김양호 |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제3장 목포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제1절 복음의 시작부터 해방까지(1894~1945)

1. 목포 기독교 태동 이전, 한국 선교

우리나라에 기독교(개신교) 복음을 지닌 선교사가 찾아온 게 벌써 185년여 전이다. 1832년 7월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의 구츨라프가 보령 고대도에 와서 한 달여 사역하였고, 1865년 9월 영국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는 평양 대동강에 오자마자 셔먼호 사건으로 죽음을 당했다. 이 둘은 각기 중국 선교사로 와서 개인적인 조선 정탐활동 중 벌어진 일이었다.

해외 기독교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 북장로교의 1884년 알렌 의사부터이다. 그리고 다음해 1885년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목사 선교사로서 찾아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에 캐나다와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 남장로교에서도 각기 선교사들이 찾아와 선교활동을 펼치게 되어 선교사들은 예양협정을 통해 조선의 선교지를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목포와 호남은 미 남장로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미 남장로교 조선선교회는 1892년 레이놀즈를 비롯한 7명의 남녀가 조선에 처음 도착하여 사역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서울에 베이스 캠프(딕시)를 구축하고 조선어를 익히며 조선의 사정을 이해하는 준비기를 가졌고, 차츰 호남 일대에 대한 정탐활동 끝에 군산과 전주를 시작으로 그들의 사역을 본격화하였다.

2. 목포에 처음 찾아온 기독교 선교사, 레이놀즈

미 남장로교 한국 개척 선교사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이눌서)는⁰¹⁾ 1894년 4월 18일, 목포를 처음 찾아왔다. 동료 드류(유대모) 선교사와 함께한 미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 지역 첫 정탐활동이었다. 이해 3월에서 5월까지 두 달간, 서울을 출발하여 군산, 전주, 정읍, 고창으로 내려가는 전북 지역과 영광, 함평, 무안을 거쳐 목포에 이르고, 이후 해남, 완도, 보성, 순천 등 남해안을 따라 전남 지역을 돌아보고 부산에 가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레이놀즈는 이 여행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일지를 남겼는데, 목포에 왔던 날에 대해서는 이날이 수요일이었고, 오후 1시에 목포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목포 사람들이 온순하고 친절하다고 기록하였고, 목포가 남서쪽 선교회를 위한 좋은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라고 첫 인상을 적었다.⁰²⁾



그림 1 레이놀즈 선교사

3. 목포와 전남 선교 개척자, 유진벨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지 4년 쯤 된, 1896년 전북의 군산과 전주 선교부가 먼저 개설되었고, 이후 1897년 10월 말에 전남의 목포 선교부 개설이 공식화되었다. 원래는 나주를 전남의 개척지로 정하고 여러 차례 탐방하며 일을 벌였으나, 나주 사람들의 배척과 방해가 심해 제대로 일을 벌이지 못하던 터였다. 전남 선교 책임자 유진벨(Eugene Bell, 배유지)이 조사 변창연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지지부진하던 차에 마침 목포가 개항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자 선교부는 그달 말 선교연례회의에서 목포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진벨은 1895년 조선에 파송은 자로, 3년전 1차로 온 선배들이 군산과 전주 등 전라북도 선교를 책임맡고 있었기에 후발로 온 그는 전라남도 책임을 맡아 사역하게 된 것이다.

유진벨은 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나주에서 목포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고, 1897년 11월 목포를 둘

01) 1894년 목포에 최초로 온 기독교 선교사로서 양동교회 2대 담임목사를 지냈다. 현 한국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다수 번역하였다.

02) 레이놀즈, 「전라도 여행일지」, 1894.

리 보았으며, 이듬해인 1898년 3월 2일 다시 목포를 찾아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초가집을 매입하였다. 그동안 서울 덕시 집에서 기거하며 틈틈이 나주 혹은 목포를 방문하며 정탐하는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는 조사 변창연, 요리사 등과 함께 기거하면서 집을 수리하고 예배 공간을 만드는 등 목포 선교 사역을 비로소 전개하게 되었다.



그림 2 목포 기독교 개척자, 유진벨 가족

4. 목포 교회의 시작, 1898년 5월 15일

유진벨이 목포 양동에 얻은 집 수리를 마치고 비로소 처음 목포에서 예배를 드린 게 1898년 5월 15일이다. 이날 임시 처소에서 유진벨의 인도로 그의 조사 변창연과 요리사, 그리고 그의 편지 내용처럼 여성들이 모여 예배하니 이 날을 목포 지역 교회의 첫 시작이자, ‘목포교회(양동교회)’의 출발로 간주한다.

오늘 아침 많은 여자들을 포함해 큰 회중이 모여 저는 대단히 고무되었습니다.⁰³⁾

지금까지 목포교회의 시작은 1897년 3월 5일로 알고 지냈다. 이는 1930년 『목포부사』의 ‘유진벨이 1897년 봄에 목포에 와 1898년 가을에 포교소를 설치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날 유진벨은 목포에 없었으며, 아침에는 서울에 그리고 낮에는 인천으로 이동하여 저녁에는 인천에 있었다. 또한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목포부사』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전도받아 출석한 주요 신자들이다.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를 비롯한 초기 조선장로교 기록에서도 모두 목포교회가 1898년 시작하였음을 말하며, 유진벨 편지를 포함한 선교사들의 이후 편지나 모든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목포교회는 1898년에 시작하였음을 말한다.⁰⁴⁾

03) 유진벨 편지, 1898년 5월 15일.

04) 김양호, 『목포기독교이야기』, 세움북스, 2016, 233~244쪽.

목포교회는 일요일 낮 예배 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 예배⁰⁵⁾와 삼일밤 수요일 예배⁰⁶⁾를 하는 것으로 초창기부터 이미 교회의 전통적 예배와 틀을 갖추 나갔다.

5. 목포 진료소 개설

1898년 5월 유진벨이 목사로서 목포교회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인 11월 6일, 오웬(Clement Carrington Owen, 오기원) 선교사가 목포에 도착하였다. 의사인 그에 의하여 목포에 진료소가 개설되었다. 오웬의 진료소는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 최초의 서양의(西洋醫) 병원이었다. 종래의 전통 한의사의 처방과 한약으로 치료받던 이 지역 환자들은 양의를 전공한 서양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양약 등으로 보다 좋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림 3 목포·전남 최초 서양의 병원, 오웬진료소

오웬의 진료소는 늘 환자들로 북적였다. 오웬은 환자의 육체적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펼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성심을 다하였다.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은 늘 많아서 항상 대기표를 받아 쥐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나무로 만든 순서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 있었다. 또한 진료 후 나눠 주는 약봉투에도 성경 구절을 써놓았고, 환자들에게 다음 진료소 올 때 반드시 가져오게 하는 식으로 전도에 힘을 기울였다.

오웬이 처음 올 때만 해도 목포교회는 10여 명의 신자였으나 오웬의 진료와 전도에 힘입어 1년이 지난 1899년 10월 주일 아침 예배는 평균 30여 명이 출석할 정도였다.

6. 목포 여성과 아이들 교육

목사 유진벨과 의사 오웬에 이어 스트래퍼(Fredrica Elizabeth Straeffer, 서 여사)가 1899년 6월 6일 목포에 부임하였다. 목포 최초 여성 선교사로서 어린이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복

05) 유진벨 편지, 1898년 7월 3일.

06) 유진벨 편지, 1900년 12월 10일.

음을 전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전통 가치관으로 여성에 대한 접촉이 어려웠던 시기에 여자 선교사의 활약은 또한 남달랐다. 그녀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상담하였으며, 어린 여자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노래를 가르치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다. 1903년 스트래퍼는 교회 주일학교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였다.



그림 4 1900년대 초 목포선교부 콤파운드 거주지역, 맨 왼쪽 오웬 사택, 가운데 유진벨 사택(배리 하우스), 가운데 아래 스트래퍼 사택, 맨 오른쪽 시약소

그리고 1903년 목포 기독교 남녀 학교를 동시에 개교하였다. 목포·전남을 통틀어 이 지역 최초의 남녀 근대학교가 출발한 것이다. 또 유아교육을 위한 희성유치원을 1923년 4월 10일에 개원하였으며, 줄리아마틴(Julia A. Martin, 마울리) 선교사와 양동교회 교인 등의 후원 아래 남교동 76번지에서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운영하였다.

목포 교육 선교를 담당한 선교사는 그 외에도 맥머피(Ada Marietta McMurphy, 명애다), 하퍼(Margaret Hopper, 조마구레), 그리고 김아각(Daniel James Cumming)이 오랫동안 주요한 역할을 맡아 했다.

1) 기독교여자학교(정명여학교)

1903년 9월 15일, 스트래퍼 선교사는 초대 교장을 맡아 조궁선 교사와 함께 수 명의 여자 아이를 데리고 목포 기독교여자학교를 시작하였다. 이후 목포교회 사모였던 변부인(Mrs. Preston), 하부인(Mrs. Harrison)에 이어 마울리가 4대 교장을, 니스벳(Mrs. Annabel Lee Major Nisbet, 유애나) 부인이 5대 교장을 맡았다.

개교한 지 8년이 지난 1911년 학교 명칭을 정명여학교로 개칭하고, 보통과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박애순, 최자혜, 박경애, 김세라 4명의 졸업생 가운데 박애순은 이후 광주수피아여학교 고등과를 또한 1회 졸업하고 수피아 교사로 지내면서 1919년 독립운동을 이끌다 옥고를 치렀다. 최자혜는 이 지역 여학생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명여학교 교사를 지낸 목포 최초 신여성이었다. 박경애는 박화성의 친언니였고, 김세라는 졸업 직전 일찍 결혼하였다. 정명 고등과 2회 졸업생 박화성은 우리 지역이 배출한 우리나라 대표 문인으로 성장하였다.

역대 교장 가운데 5대 유애나는 목포에 온 최초 교육전문 선교사로 1911년 부임하여 10여 년 재임 동안 여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녀가 재임하던 1912년에 105평 2층 석조로 된 교사를 신축했으며, 학제 역시 2년제 중등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때 78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1914년 3월에는 첫 중등과정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때 학교 이름을 사립목포정명여학교로 개명하였고, 학제 또한 4년제 보통과(초등)와 4년제 고등과(중학)로 보다 체계적인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때 목포에서도 정명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4·8 만세운동을 벌였다. 양동교회 신자와 영흥학교 학생들이 합세한 150여 명이 남교동 일대에서 벌인 목포 4·8 만세운동으로 여러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옥고를 치렀다. 이때 사용하였던 독립운동 문서들이 1983년 선교사 사택을 보수하던 중 천장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3·1운동 시기 유애나 교장이 사망한 이후 명애다, 김아각, 유서백, 조마구레 등이 차례로 1920년대와 1930년대 교장을 역임했다. 1923년 1월 석조 3층 240평의 건물을 지어 후원자의 이름을 따 ‘맥컬리어학교’라고 하였으며 기숙사와 운동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1924년엔 보통과 6년제와 고등과 4년제로 학제를 변경하며, 중등과정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그림 5 1923년 완공한 맥컬리 여학교 건물



그림 6 유애나 교장 사택

1930년대 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의해 전국의 기독교학교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미 남장로교 선교부 총무인 풀턴에 의해 신사참배 거부와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 호남 지역 기독교학교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정명여학교 역시 1937년 9월 6일 폐교하였다.

2) 기독교남자학교(영흥학교)

1903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28일) 유진벨, 임성옥, 유내춘 등이 학교를 세우기로 발기하고, 양동 86번지에 영흥서당을 개설하였다. 유진벨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이후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변요한), 해리슨(William Butler Harrison, 하위럼) 선교사와 유내춘, 남궁혁 등이 교사로 학교를 이끌었다.



그림 7 일제 시기 영흥학교 근로장학 활동

종래의 초등과정에 더해 1908년 10월 10일부터 중학부 과정을 신설하였다. 여학생들은 바느질과 다림질 등으로, 남학생들은 바깥 근로사역 등으로 교과외 활동을 하였는데, 일종의 근로 장학제도였다. 학생들은 일요일에 교회 출석을 의무적으로 하였고, 주일 오후에는 거리 전도 활동을 필수로 하였다.

1909년 10월 10일 석조 교사를 신축하였는데, 후원자 이름을 따 ‘존 왓킨스 아카데미’라고 하였다. 1911년 첫 중등과정 졸업생을 배출했고, 1914년 니스벳 교장 시절에 학교 이름을 사립목포영흥학교로 개명하였고, 학제도 4년제 보통과와 4년제 고등과로 개편하였다. 1937년 9월 20일 일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폐교하였다.

7. 교회 당회 조직과 첫 세례식

1900년 목포교회는 최초 당회를 조직하였다. 당회장 유진벨, 서기 오웬으로 구성하고 성례전도 이때 처음으로 하였다. 8월에는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첫 세례자들은 목포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광주와 전남 일대를 다니며 전도하는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였다. 기존의 조사였던 변창연을 비롯하여 지원근, 마서규 등이 있고, 유성기를 짊어지고 도서지방을 다니며 전도한 노학주와 그 외 김만실, 김현수, 임성옥, 김치도, 그리고 김윤수 등이 있다.

1903년 목포교회는 양옥식 예배당을 지어 6월 28일 헌당예배를 하였다. 목포교회의 최초 전용 예배당으로 이름을 ‘로티 위더스푼 벨 기념 교회당’이라 하였다. 유진벨의 아내로 목포교회 초대 사모였던 로티 위더스푼 벨은 목포에서 사역한 지 불과 3년만인 1901년 4월 12일, 34살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목포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고 그녀를 추모하여 이름을 붙였다. 당시 세례 교인은 27명, 평균 출석 교인이 60~70명이었다. 평신도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이때 이미 광주와 영광, 장성, 나주, 무안 등지에 10~20여 명이 출석하는 예배 처소들이 곳곳에 생겼다.



그림 8 로티 위더스푼 벨 기념 교회당(Lottie Witherspoon Bell Memorial Church). 1903년 6월 28일 헌당예배를 드린 목포 최초 예배 전용 교회당이다. 기와지붕의 한옥과 벽돌 벽의 양옥식을 겸한 단층짜리 외형에, 내부는 높은 천정에 아름다운 등이 걸려 있고, 긴 회중석 의자와 큰 오르간이 있었다. 사진은 예배당이 지어진 이후부터 1904년 사이에 찍은 것으로, 맨뒤 오른쪽부터 오웬, 유진벨 부부, 프레스턴 부부와 목포 신자들의 모습이다.

8. 목포 최초 장로들

목포교회가 설립된 지 8년 만인 1906년 4월 10일 장로 장립식을 하였다. 목포 첫 장로는 임성옥이었으며, 식은 프레스턴 목사가 집례하였다. 임성옥은 이미 교회 초기부터 유진벨을 도와 교회를 이끌었으며, 기독교 학교 설립을 비롯한 교세 확장에 크게 헌신하여 왔었다. 임 장로는 190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독노회가 창립총회로 모일 때 목포교회를 대표하여 참여하였으며, 이후 193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헌신하였다.

1907년 목포의 두 번째 장로 유내춘 장립식이 있었고, 그는 영흥학교 교사로 봉직하였으며, 그도

신학을 하고 1917년 전남노회가 창립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유내춘은 순천중앙교회와 나주, 송정, 그리고 광주에서 목회하였다.

1915년 목포 세 번째 장로 장립식의 주인공은 곽우영이었다. 그는 정명여학교 교사로서 3·1운동 때 학생들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이후에 목사가 되어 순천중앙교회를 담임하였다.

9. 목포 교회의 부흥과 한국인 목회자

1907년 평양대부흥회 사건은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 가히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이 부흥운동은 그보다 6개월 전, 1906년 가을 목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목포교회를 이끌던 프레스턴은 자신이 장로교도임에도 감리교 선교사 저다인을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는데, 상당한 은혜와 부흥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때 불과 200여 성도였는데, 3년 후인 1909년엔 3배 가까이 증가한 550여 성도로 예배당이 매우 비좁아 더 큰 공간의 예배당이 필요하였다.



그림 9 1910년대 초기의 목포 교회

이에 864평 대지 위에 106평짜리 600명 수용 가능한 정방형 건물을 새로 지었다. 유달산 돌을 날라 석조로 지었으며 모두 7,100원이 소요되었다. 좌측 출입문 위에는 태극 문양과 ‘대한윙희4년’ 연호가, 우측 출입문 위에는 ‘주강생일천구백십년’이 각기 새겨져 있다. 1910년 공사에 착수하여 1911년에 완공된 이 예배당은 그후 몇차례 보수와 증축을 거쳐 등록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어 2017년 현존하고 있다.

교회 건축 필요성이 제기되던 1909년 9월 15일 목포교회는 윤식명 목사가 새 담임이 되었다. 유진벨(1·3대), 레이놀즈(2대), 프레스턴(4대), 해리슨(5대)에 이은 6대 담임목사로, 목포교회는 미국 선교사에서 한국인 목사로 새시대를 연 것이다.

윤식명은 1909년 힘있는 설교와 선한 목양으로 교회를 잘 이끌었다. 당시 윤목사는 한달에 18원(9달러)을 받았으며, 목포교회를 위해 5년간 열심히 일하다 전라노회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 모슬포교회를 담임하고 후에 전북 지역에서 목회하였다. 목포교회는 이후 이원필(1914년), 이경필(1917년), 김응규(1922년)가 담임으로 부임하였다.

목포와 인근 전남서부권 농어촌 지역에서 전도하며 교회 개척에 힘쓴 선교사로는 그 외 맥컬리

(Henry Douglas McCallie, 맵헨리), 메쿠첸(Luther Oliver McCutchen, 마로덕), 크레인(Paul Sackett Crane, 구보라), 베너블(William Anderson Venable, 위워럼), 니스벳(John Samuel Nisbet, 유서벳), 녹스(Robert Knox, 노라복) 뉴랜드(LeRoy Tate Newland, 남대리), 힐(Pierre Bernard Hill, 길변하), 하퍼(Joseph Hopper, 조하파), 멀피(Thomas Davidson Murphy, 민도마), 김아열(Bruce Alexander Cumming) 등이 있다.

10. 제2·제3의 목포교회 세포 분열

1) 온금동교회

목포의 두 번째 교회인 온금동 교회가 191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 지역이 ‘수정’이어서 초기엔 ‘수정동교회’로 불렸다. 잘 성장하여 1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지만, 교회 지도력 부재 등으로 지속성이 약했다. 1927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16회 총회에 보고한 전남노회 소속 교회 명단에 목포 교회는 단 2개였는데, 양동교회와 온금동교회(미조직)였다. 조직교회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존재감이 불분명했던 온금동교회는 1929년 남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재차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이장호 전도사와 김민숙 장로 등이 교회를 이끌었다. 일제 말기 양동교회로 통폐합되었다.⁰⁷⁾

2) 중앙교회

1923년 4월 10일 남교동 76번지에 양동교인들과 선교사 줄리아 마틴이 개척, 주변의 집들을 2,500원에 매입하여, 1,000원을 들여서 수리하여 기도처로 처음 사용하였다. 1933년 전남임시노회에서 분립을 의결하여 목포중앙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박연세 목사가 임시 당회장을 맡았다.

1935년 8월 죽동 114번지에 40평 석조 예배당을 건립하고 박용희 목사를 초대 위임목사로 세워 10월 20일 헌당예배를 드렸다.

목포의 장로교 기독교도가 날로 증가함을 따라 현재 부내(府內) 양동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중앙교회를 총 공비 오천 원으로 석조 양식으로 지난 8월 중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지난 십오일

07) 1942년 일제는 한국의 교회들을 ‘조선혁신교단’으로 통합하고, 1945년 다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폐합되었다. 목포지역 교회들은 양동교회에 통폐합되어 ‘일본기독교단 합동교회’라는 새 간판을 써야 했다.

에 준공을 마치고 이십일 오전 11시 낙성식을 목사 박용희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총공비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내빈 축사와 성대한 낙성기념식이 있는 후 동 오후 1시에 무사 폐회하였다 한다.⁰⁸⁾

박용희 목사에 이어 1940년 1월 5일 이순영 목사가 2대 담임으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재임중인 1942년에 일제 강압에 의해 목포 시내 교회들이 양동교회로 강제 통폐합되면서, 중앙교회가 폐쇄되었다. 이순영 목사는 통합된 양동교회로 옮겨 시무하였다. 폐쇄되기 전까지 중앙교회 장로는 조병선, 서화일, 서인호, 김균희와 제주에서 온 홍순흥, 그리고 주남득 등이 함께 시무했다.

3) 죽교리교회

양동교회 박대현 집사는 자신이 살던 죽교리에 1927년 7월 기도처를 개척했다. 당시 유달산 밑 죽교리에 거주하던 양동교회 교인들은 교통의 불편함이 있었다. 남교동파출소 일대는 갯벌과 갈대가 무성한 지역이었다. 죽교리 주민들은 양동에 있는 교회를 오가기 위해서 밀물 때는 작은 배나 뗏목을 이용해 건너야만 했다. 이는 특히 밤 예배 때 오가는 데 문제가 많아 죽교리에 또 다른 예배 처소를 세운 것이다.

유달산 달동네인 죽교리교회 터는 북교동의 지주 최여장이 신도들의 청을 받아들여 39평 대지를 기부하여 마련되었다. 거기에 10평 남짓 기와 예배당을 지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미국 선교회 유헤레(Florence Elizabeth Root) 선교사가 기증하였다.

1929년 6월 5일에 노회의 승인을 얻어 죽교리교회로 설립되었다. 박연세 목사가 설립 예배를 인도했으며, 당시 주요 성도로는 박대현, 정경춘, 김상련, 박문규, 추성렬, 정태원, 권태균, 윤순덕, 박명춘 등이고 출석 성도는 60여 명이었다.

1934년 1월 윤남하 전도사가 부임했다. 윤남하는 당시 신학교는 물론 성경학교도 다녀 본 적이 없는 무명의 평신도였다. 뜨거운 신앙심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여기 저기 교회를 다니며 전도인으로 지내다 22세에 정식으로 교회의 청빙을 받고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이후 일본에서 신학원을 마치고 정식으로 목사가 되었으며, 전북과 서울 등지에서 목회하였다.

윤남하 전도사 뒤를 이어 전병진 전도사, 정관진 장로, 그리고 1942년엔 배영석 목사가 차례로 부임하여 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일제 강압에 의해 목포 시내 교회들이 강제 통폐합되어 죽교리교회가 폐쇄되었고, 교역자 배영석은 양동교회 조사로 들어갔다.

08) 『동아일보』, 1935. 10. 23.

4) 연동교회

양동교회 김규언 장로와 일부 성도들은 1928년 4월 7일, 연동 154-9에 따로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연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선교사 하퍼 300원, 간호사 휴손(허우선)이 200원을 각각 보조하고 교회에서 300원을 더해 총 800원으로 부지 200평을 사서 예배당과 사택을 지었으며, 초대 사역자는 조 하퍼 선교사가 임시로 맡았다.

초기 10여 년간 양동교회 전도사 등이 순회하며 교회를 도왔으나 제대로 된 목회 지도자가 부재하였다. 1938년이 되어서야 이남규 목사가 부임,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었다. 이남규 목사는 강진 읍교회 전도사로 있던 중,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목포 연동교회에 부임하였다.

1942년 신사참배와 교회 통폐합을 강요하는 일제에 저항하여 반대 운동을 벌이다 이남규 목사와 김규언, 최강순, 김창옥 장로가 투옥되었다. 김창옥 장로는 일경의 가혹한 고문에 33세의 젊은 나이 에 숨지고 말았다. 교회는 양동교회에 흡수되어 연동교회가 없어지고 말았다.

5) 서부교회

1934년 양동교회 박연세 목사는 교인 일부를 떼어 하죽교리에 서부교회를 설립하여 따로 예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갖지 못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

6) 북교동교회

장로교가 아닌 교단 가운데 성결교회가 목포에서 일찍 시작되었다. 목포 성결교회는 1925년 5월 2일 장석초 전도사를 담임으로 죽동 132번지에서 설립되었다.

1928년 3월 교회를 목포시 북교동 191번지로 이전하여 김응조, 이성봉 목사가 차례로 담임하였으며, 1935년 12월 목포 북교동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림 10 목포제일성결교회(북교동교회)와 교인들(최성환 소장)

1936년 4월 제4대 광재근 목사가 부임하였는데, 그해 성결 교단 분열 사건인 ‘하나님의교회 사건’으로 광재근 목사와 추종 신자 다수가 나가 측후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김태일, 이우영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었으며, 1943년 12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7) 일본인 목포교회

일제강점기 목포에는 일본인들만 다니던 교회가 있었다. 1912년 8월 일본 기독교전도국에서 다케우치[竹内虎也] 목사를 파송, 일본인들이 몰려 사는 항정(港町)에 설립하였다. 목포 주재 일본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일요일 오전에는 일요학교와 예배를 하고, 저녁에는 전도 설교회를 열어 명사 초청 강연회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세가 늘어가자 1914년 7월 더 넓은 장소로 집회소를 옮겼으며, 광주까지 순회 전도활동을 하여 회원이 40명이 넘었다.

그러나 1918년 이후 관리와 상인들 위주의 성도들이 잦은 출타와 이주로 교세가 줄어가자 1919년 일본 전도국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국내 목사를 소환하여 남은 신도들끼리 모였다. 1921년 전도국은 다시 목회자를 파송했다.

1922년 9월 28평의 양옥 교회당과 13평의 일본식 2층짜리 목사 사택을 건립하였다. 청년회와 부인회가 있었다.

1929년경 주일학생 50여 명, 대예배 25명, 밤 예배 10여 명이 출석하였으며,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이 모두 귀국하여 교회가 자연 폐쇄되었다.



그림 11 일제강점기 목포의 일본인교회



그림 12 2017년 현재의 옛 일본인교회. 2층은 해체된 상태이고, 1층 출입문 위에 '목포일본기독교회(木浦日本基督教會)'라고 새겨져 있다.

8) 용당리교회, 상리교회, 측후동교회

해방 이전 행정상 무안군에 속했던 용당리교회는 1928년 4월 2일, 최아석 영수 인도 아래 시작되었으며, 상리교회는 1932년 5월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측후동교회는 1936년 3월 북교동교회 목사 광재근이 일부 성도들과 함께 교단을 이탈하여 측후동에 하나님의교회 교단 소속으로 설립하였다.

9) 신사참배와 교회의 핍박, 통폐합

1926년 박연세 목사가 목포교회 10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즈음 교회 이름을 ‘양동교회’라 개칭하고, 또한 지역별로 교인들을 나누어 교회를 분립하기 시작했다. 이미 1911년에 목포교회에 출석하던 신자 일부가 멀리 무안 구정리에 따로 모여 ‘구정교회’를 분리 개척한 적이 있었고, 1914년 수정동(경동)교회, 1923년 중앙교회, 1927년 죽교리교회, 1928년 연동교회와 용당리교회를 차례대로 세웠다.

목포교회의 연이은 교회 개척 분립 등으로 지역교회가 생겨나고 발전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기독교 핍박이 드세지기 시작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했다. 일제의 강압으로 전국적으로 기독교계가 배교에 무릎꿇었는데, 목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박연세 목사와 목포 교회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는 실수와 아픔도 겪어야 했으니 1938년 5월 뼈아픈 배교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목포 부내(府內)에 산재한 양동교회, 중앙교회, 성결교회, 신(神)의교회 각 기독교회에 대하여 당국에서 신사참배를 권유한 바 있었으나, 기독교회에서는 기독교 이외 이신(二神)을 섬길 수 없고 신사참배는 국가적 종교임으로 의식을 존중하지 않는 바 아니나 교의에 위배된다 하여 완강히 반대하여 왔으나 도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목포서 고등계에서는 재삼 신사참배에 권세한 바 있어 결국 지난 13일 각 교회가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국민의 의무로 보아서는 신사참배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지난 14일 각 교회 대표자들은 신사참배의 서약서와 성명서를 목포서에 제출하고 이에 순응하기로 하였다 한다.⁰⁹⁾

09) 『동아일보』, 1938. 5. 15.

장로교 총회와 노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등 연이은 실책을 저지른 박연세 목사는 이후 늪우치며 일제 황민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일제는 박연세 목사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 그만 옥사하였다. 담임목사를 잃어버린 교회 는 목자 잃은 양들만 남게 되었다.

일제는 더욱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궤방을 놓다가 1942년에는 아예 내선일체 명분을 앞세워 조선 교회들을 일본 교회에 예속시켰다. 지방 교회들도 강제 통폐합을 일삼으니, 목포 역시 여러 교회들을 양동교회 하나로 다시 합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동교회 목회자로 중앙교회에서 시무하던 이순영 목사가 취임하였다.

이순영 목사 뒤를 이어 1944년부터 해방까지 1년 남짓 조승제 목사가 양동교회를 맡았다. 조승제 목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일본 아오야마(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함북 웅기교회를 첫 목회하였다. 일제강점 말기 친일 노선에 기울어, 전남노회를 정치적으로 장악, 전남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목포 여타 교회들을 매각 처분해 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였고, 자신은 양동교회 담임까지 취하였다.



그림 13 1930년 목포양동교회 박연세 목사화 정로들

10) 목포 프렌치병원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호남에서 사역한 1892년부터 1983년까지 약 288명의 선교사들이 다녀갔다. 그 가운데 의사 선교사는 약 80여 명이였다. 1894년 드루가 군산에서 시작한 것을 필두로, 목포에는 1898년에 오웬이 처음 사역을 펼쳤다. 목포는 그후 포사이드(Wille Hamilton Forsythe, 보워럼), 놀란(Joseph Wynne Nolan), 버드만(Ferdinand Henry Birdman), 하딩(Maynard C. Harding), 리딩햄(Roy Samuel Leadingham), 길머(William Painter Gilmer), 그리고 할리스터(William Hollister)까지 8명의 의사가 찾아왔다. 간호사는 라드롭(Lillie Ora Lathrop), 베인(Mary Rachel Bain), 마에스더(Esther Rosewell Matthews), 허우선(Georgiana Florine Hewson) 등의 미혼 여성과 목사 사모를 겸했던 에밀리 코텔(Mrs. MaCallie), 마가렛 에드먼즈(Mrs. Harrison), 버지니아 커(Mrs. Cumming) 등이 있었다. 1910년엔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 오금선 의사가 잠깐이나마 목포의 환자들을 진료, 근무하기도 했다.

리딩햄(한삼열)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1914년 목포 진료소 화재 사건이 있었다. 병원 전체가 전



그림 14 프렌치병원(French Memorial Hospital), 1916년 호남동에 지어진 석조 2층의 현대식 병원. 해방이후 의료 사역은 철수되고, 고등 성경학교로 사용해 오다 1970년대 말 철거되었다.

소되었으며, 한국인 조수 윤병호가 안타깝게도 순직하고 말았다. 윤병호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목포까지 내려와서 의사 선교사의 조수로 일하며 서양 신식 의료 기술을 배우던 청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20살 약관에 아내 김세라와 유복자 윤원중을 남기고 사망한 것이다.

화재로 진료소를 잃은 목포 선교부는 새로 병원을 세우는 게 급선무였는데, 선교부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미 남장로교 선교부는 당시까지만 해도 의료선교에 있어서 의사를 파송하고 의료장비 지원은 했으나, 병원 건물을 돈 들여 짓는 일에는 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정황을 포사이드 선교사가 미국에 복귀하여 소개하자, 미주리 주 프렌치(Charles W. French) 장로의 유산과 성요셉(St. Joseph)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 보내 줘 병원을 신축하게 하였다. 1916년에 호남동 6-1번지에 석조 2층의 건물을 짓고 ‘프렌치메모리얼병원(French Memorial Hospital)’이라 하였다. 리딩햄은 11년간 의료 선교하다 1923년 귀국하였다.

1927년에는 중국 선교부에서 일하다 온 제임스(James B. Woods Jr.)와 프라이스(Philip B. Price) 의사가 잠시나마 목포에서 의료 활동을 하였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프렌치병원에 1931년까지 의사를 파송하여 진료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의사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으며, 한국인 의사들로 병원을 운영했으나, 일제 치하에서 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40년까지 지속되기는 했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병원 건물은 성서신학교 용도로 사용되다 1960년대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었다. 미 남장로교 호남 선교부의 기독교병원들이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크게 기여하며 온전히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5개 선교부 가운데 유일하게 목포의 기독교 프렌치병원의 명맥만 끊어져 버린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제2절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1945~2017)

1. 교회

1) 교회 회복과 재건

해방 후 양동교회와 목포 기존의 교회들은 이남규 목사에 의해 회복, 재건되었다. 박연세 목사의 동지요 후배였던 이 목사가 양동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자 일제강점기 하에서 실망하고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이남규 목사는 전남 무안 복길 출신으로 맹현리 선교사 조사를 지내다 1938년 목사 안수를 받아 연동교회에서 목회하였었다. 그는 해방 후 목포 지역 교회는 물론 전남 노회와 산하 교회들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 1947년에는 전남노회로부터 목포노회를 분립하고 초대 목포노회장에 피선되었으며, 또한 교회 외적으로는 초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정계와 사회에서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해방의 기쁨 속에 이남규 목사와 여타 목회자, 성도들이 협력하여 목포의 기존 지교회들을 다시 열게 되었다. 온금동교회는 채길용 전도사가 교역자로 활동하며 교회를 다시 열었고, 중앙교회는 옛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열고 정희열 목사가 담임하였으며, 죽교리교회는 주용진 집사(후에 새밭교회 장로)가 현금 2천 원을 기부하여 팔렸던 교회를 되찾았다. 전남 무안 출신 주용진은 17살이던 1939년부터 죽교리교회에 출석했으며, 해산물 사업으로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돈을 버는 대로 교회에 헌금을 하였다. 조승제 목사의 실수로 팔려나갔던 목포의 교회들을 다시 되찾는 데 아낌없이 헌신하였고, 조 목사의 불명예도 회복시켜 주어 목포 교회사에 남았다. 연동교회는 김규언 장로 등의 헌신으로 재건하였다. 서부교회는 1949년 1월 16일 30여 명의 성도들로 재차 설립예배를 드렸다. 북교동성결교회도 해방 후 1945년 10월 김신근 전도사를 7대 교역자로 하여 교회를 다시 일으켰다.

한편 1940년을 전후로 강제 추방당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해방 이후 다시 목포에 찾아왔는데, 커밍(김아각)을 비롯하여 조하파, 조마구레, 맥머피 등이며 1960년대까지 타요한, 보계선, 유화례, 인사례 등이 교회와 기독교학교 등지에서 한국인 목사들을 도왔다.

해방 직후만 해도 목포의 10여 개 교회는 다수가 장로교회였고, 북교동교회가 유일하게 성결교회로 재시작되었다. 6·25전쟁이라는 남북간 민족 전쟁의 참화 속에 모든 교회가 핍박과 순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목포 장로교는 현대사 속에 분열과 갈등이 이어져 여러 교파로 나뉘어졌으며, 그 외에도 감리교, 오순절, 그리스도의교, 구세군 등 여러 교단들이 목포 지역에 등장하였다.

2) 장로교

목포 최초 복음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장로교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교세를 보이며 성장 발전해 왔다. 해방과 6·25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목포의 십여 장로 교회들이 재건되고 재성장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이해와 교권에 대한 갈등으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47년 기존의 전남노회에서 목포와 목포권 교회들로 목포노회가 창립되었다. 목사회원 18명, 장로회원 33명과 선교사 1명으로 목포 양동교회에서 회집하였고, 초대노회장에게 이남규, 부노회장에게 배영석이 선출되었다.

목포 장로교단은 1953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38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 운영 문제와 함께 성경비평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차이로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와 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로 분열하였다. 목포 기존 교회들이 이남규 목사 주도 아래 대부분 기장에 남았으며, 김병규, 김점래, 송암석 목사와 최섭 장로 등을 중심으로 따로 예장교회를 형성했다. 양동교회도 일부 성도들이 따로 나가 기장 양동교회와 예장 양동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예장 소속 교회는 1959년 9월 44회 총회에서 예큐메니칼 연합운동에 대한 이해 차이가 생겨 다음 해 1960년 목포 노회가 각기 둘로 나뉘어 열렸다. 이때부터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섰다. 예장양동교회도 통합측의 양동제일교회와 합동측의 새한교회로 각각 분열하였다. 이때 통합측에는 김성배, 문철수, 이귀동 목사 등의 주도 아래 양동제일교회, 희성교회, 성산교회, 동부교회 등이 있었고, 합동측에는 김일남 목사 주도 아래 목포제일교회, 시온교회, 새한교회, 영락교회, 동문교회 등이 있었다.

합동측 교회는 이후 1979년 64회 총회에서 교권 등의 이유로 다시 나뉘어진 교회들이 개혁교단을 형성하였다. 합동 주류에 남아 있었던 교회는 김원범 목사 주도 아래 시온교회, 영락교회, 호남교회 등이 있었고, 비주류로 나가 후에 개혁교단을 이룬 교회는 김일남 목사를 중심으로 한 목포제일교회, 새한교회, 동문교회 등이 있었다.

이후 예장 개혁 교단에서도 그동안 여러 재결합과 재분열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2005년 기존의 합동과 대통합을 이루는 경사도 있었다. 물론 일부는 그대로 예장 개혁교단을 유지하는 교회들도 있



그림 15 마인게터로 있었던 옛 죽동교회. 1935년에 목포중앙교회에서 지어 사용하다가 1957년 죽동교회에서 인수하였다.

고, 또 다른 이유로 백석, 야웨, 고신, 대신, 합신 등의 교단 교회들이 목포에 하나둘씩 있기도 하다.

(1) 기독교장로회

목포 최초 교회인 양동교회를 비롯하여 목포 초창기 시작한 교회들이 대부분 기장 소속이다. 12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양동교회는 유진벨에 의해 1898년 설립되었으며, ‘로티벨기념예배당’에 이어 1911년에 현 위치에 지어진 예배당을 2017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14년 시작한 목포 두 번째 교회였던 수정동(온금동)교회는 향도교회, 경동교회 등으로 이름을 바꿔 왔으며, 김동발 목사가 재임하던 2001년 영암 삼호로 이전하였다.

중앙교회는 1946년 4월 11일 3대 목사 정희열을 청빙하여 교회를 재건하였다. 새롭게 회복한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교인이 급증하였다. 6대 이국선 목사가 담임하던 1957년 교회 건물을 죽교리교회에 매도하고, 그해 5월 3일 영산로 75번길 5(무안동 2-4), 목포의 옛 중심지 오거리에 있는 구 동본원사(목포 최초 일본 불교사원)를 매입, 7월 1일 이전하였다. 2007년 11월 옥암마을길 116번길로 옮겼으며, 다음해 예배당을 새로 짓고 헌당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남약시대를 열고 있다.

죽교리교회는 함찬근 목사 재직 시 1953년 회성교회를 분립하였으며, 1957년 정원모 목사 재임 중, 수문로 35번길(죽동 114번지), 당시 중앙교회가 1938년부터 지어 쓰고 있었던 예배당을 인수하여 옮겼으며, 이때 교회 이름도 죽동교회로 바꿨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담임 유기문 목사는 목포 지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구국기도회를 주도하고 목포 지역 교회의 신앙고백문을 작성 낭독하였다. 죽동교회는 2000년대 들어 석현동으로 이전하여 이름도 우리예닮교회로 재차 개명하였다.

연동교회는 최명길 목사가 부임하였는데, 최 목사는 해방 직후와 6·25 전쟁의 혼란기 가운데 교회를 회복하고 이끌다, 김계수 장로와 함께 순교하였다. 1970년대 담임 강신석 목사는 유신반대를 주도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느라 옥고를 치루었고, 1980년 민주화운동 때는 안철 장로 등이 앞장서느라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이 많았으나, 신앙으로 견디며 목포 지역의 든든한 중견 교회로 성장하였다. 연동교회는 산대로 44-2에 소재하였다가, 1995년 하당 신도심인 백년대로 307번길 6에 대지 550평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 이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부교회는 일제강점기 말기 교회 통폐합에 부역하며 실수를 저질렀던 조승제 목사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1945년 12월 9일 김사라 등과 함께 창립하였고, 용당장로교회는 1955년 10월 4일에 설립되었다.

목포 기장 교회는 이외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갈릴리교회, 한신교회, 동원교회, 새생명교회, 유달제일교회, 동안교회 등이 설립되었고, 2000년대 옥암 남약시대에 들어서 벨엘교회, 꿈

동산교회 등과 북항 쪽에 위치한 산돌교회, 선린교회 등 모두 28개 교회가 생겼다. 목포 기장 교회는 1947년에 시작한 전남노회에서 분리한 목포노회로 모여 1960년 4월, 14회까지 노회를 개최하였으며, 1960년 8월 기존의 전남노회와 통합하여 현재 대한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목포시찰에 소속되어 있다. 1947년 첫 목포노회록부터 2013년까지의 노회록을 묶은 전남노회 회의록 1~4집을 발행하였다.

(2) 예수교장로회 통합

1953년 한국 장로교의 분열로 말미암아 목포에서도 기장과 예장 소속으로 각기 나뉘었는데, 최초 교회였던 양동교회에서도 기장의 양동과 예장의 양동으로 나뉘었다. 예장 양동은 1960년대 초에도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었는데, 통합의 양동은 1961년 3월 5일 양동제일교회라 이름을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동제일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잇는 목포동부교회는 1928년 설립한 용당교회가 1950년 김점래 목사 때 이름을 동부교회로 개칭하였다. 3호광장에 위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동부교회에서 파생한 지역 교회가 여럿 생겼다.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주축이 되어 1952년 목포성산교회가 죽동에 세워졌는데, 현재는 이전하여 석현동에 있다. 희성교회는 죽교리교회 김종실 집사 등이 나와서 세운 교회로 195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양동의 현 위치에 있다.

1960년대 들어 새로 개척한 교회로는 은혜장로교회, 신광교회, 신일교회 등이, 1970년대 세운 교회로는 성문교회와 삼일교회가 있고, 1980~1990년대 하당시대에 들면서는 목포동신교회, 목포세광교회, 새문안교회, 목포초대교회 등과 남악으로 이전한 목포평안교회 등이 있다. 또한 북항 지역에는 충신장로교회와 제자훈련으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과 교회상을 전개한 빛과소금교회 등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진 목회자의 대량 증가와 함께 교회 역시 배가하였다. 구도심과 북항 지역에는 밥퍼 사역을 돕는 예촌교회를 비롯 생명샘교회, 예수공동체교회, 생명나무교회 등과 하당 지역의 새빛교회, 물댄동산교회, 그리고 목포 지역 목회자 성경연구운동에 헌신하는 꿈이있는교회 등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만들고 있다.

한편 여성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들로는 화평교회, 우리좋은교회, 새능력교회, 그린나래교회, 하예성교회, 호산나교회 등이 있다. 목포 예장 통합교회는 2017년 1월 현재 모두 63개이다.

예장통합 목포노회는 1973년 최초의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정학송이다. 그는 양동제일교회 장로로서 정명학교 교장이었다. 두 번째 장로 노회장을 지낸 최섭은 목포 프렌치병원의 의사로 활동

하였으며, 제중의원을 개설하였고, 해방 후 초대 목포부윤(시장)을 지내며 목포 정명여학교를 재건하였다. 하대희 장로는 평안도 출신으로 1·4후퇴 때 목포에 내려와 신앙생활을 하며 목포제일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다. 이후 성산교회로 이명하여 교회는 물론 YMCA 운동 등으로 목포 지역 사회운동가로도 활약하였다.

목포노회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윤여권 목사는 김성철 목사로 하여금 노회 사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노회 회의록 1집을 발행하였고, 1997년에는 미남장로교 목포선교부 보고서를 각기 펴냈다. 선교부 보고서는 1, 2집으로 연례보고서, 유진벨 편지, 프레스턴 편지 등을 담고 있는 목포 초기 선교역사의 귀중한 사료다. 노회 회의록은 2005년에 4집까지 발행하여 1947년 첫 목포노회부터 2005년까지 노회록을 모두 엮어냈다. 또한 1997년 『목포지방기독교 100년사』를 노회에서 펴냈다.

(3) 예수교장로회 합동

예수교장로회는 1959년 한국 교회 안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찬반으로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졌는데, 예장 양동은 통합의 양동제일교회와 합동의 새한교회로 각기 나뉘었다. 1898년 목포 초대 교회를 잇는 목포새한교회는 1960년대에 갈라서면서 구도심 중앙시장 영산로길에 있었다가 지금은 석현동으로 이전하였다.

상리교회는 해방 이전 1932년에 설립된 오래된 교회로 나중에 목포 지역 확장에 따라 편입되었으며, 해방 이후 1950년대 들어 목포 합동측 교회들이 여럿 생겼다. 1952년에 우리목포교회와 신흥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신흥교회는 이후 1967년 시온교회로, 2011년에 시온성(聖)교회로 개명하였다. 1953년 성도교회와 목포제일교회가 창립되었는데, 목포제일교회는 1953년 8월 15일 창평동 1번지 황금탕 2층에서 남부교회에 출석하던 박찬영, 김동환, 전태균 등 70여 명이 나와서 김무봉 목사를 위임하였다. 영락교회는 송암석 목사와 김윤용 장로 등에 의해 개척되었고, 여기에 1959년 교단 분열로 인해 통합의 동부교회로부터 합동의 동문교회가 생겼으며, 목포역 뒤쪽에 김기현 목사가 개척한 호남교회 등은 1970년대 말까지 목포 지역 교회의 대표적 합동교회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왔다.

1970년대에 개척이 끊겨 있던 합동교회는 1980년대 들어 대량으로 개척되기 시작했는데, 목포새순교회, 우리교회, 신화로교회, 목포유달교회, 목포충현교회, 하당제일교회, 그리고 북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목포주안교회와 하당과 남악 신시가지 개발의 중간 지점에서 크게 도약하고 있는 사랑의교회가 있다.

1990년대에는 북항과 원산동 지역의 열린교회, 창조교회, 목포새소망교회, 성약교회 등이, 삼학

지역의 예손교회, 석현동에는 목포제일교회에서 분립한 새목포제일교회, 하당 지역에는 평화제일교회, 목포복된교회, 서로사랑교회, 그리고 대양검문소삼거리 쪽에 위치한 목포월산교회가 있다.

2000년대에 창립한 교회는 서로사랑교회를 비롯하여 미래로교회, 백년로교회, 주원장로교회, 늘기쁨교회, 언약교회, 새늘교회, 사랑의동산교회 등 30개 이상의 교회가 새로 생겨났다.

목포 합동교단은 2005년 개혁에서 복귀한 교회들 중심의 목포제일노회와 기존의 교회들이 나뉘어 목포 동노회, 서노회 등 3개 노회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7년 1월 현재 모두 105개로, 목포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가 속해 있다.

(4) 예수교장로회 개혁과 그 외

예장합동 교단은 1979년 교권 문제로 인해 대구에서 열린 총회에서 또다시 분열하게 되었다. 이때 탈퇴한 교단은 그동안 재결합, 재분열의 술한 이합집산이 이뤄졌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예장개혁이었다. 예장개혁은 2005년 예장합동과의 대통합 때 상당 교회가 합동으로 원대복귀하였으나 개혁교단에 그대로 남아 교단을 유지하는 교회도 많다.

목포 예장개혁은 동부중앙교회와 주영광교회를 비롯하여 2017년 1월 현재 17개 교회가 있다.

그 외 예장개혁 전남노회에 누림교회 등 7개 교회, 예장백석에 온누리교회 등 9개, 예장합동한신은 순성교회와 측후동교회를 비롯한 8개, 예장아웨는 성광교회 등 10개, 예장개혁총회는 목포만나교회 등 10개 교회, 예장합동백석은 서광교회 등 9개 교회, 예장합신은 하나교회 등 4개 교회, 그리고 예장고려, 고신, 대신 교단 교회들이 각각 1~2개씩 있다.

2) 감리교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장로교)와 함께 최초로 찾아온 감리교 목사 선교사이다. 그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린 성경번역위원회 모임을 위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 그만 해상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감리교 선교 역사에서 목포는 첫 개척자를 잃게 만든 안타까운 공간이다.

정작 목포에 감리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이다. 그동안 선교사들의 협의에 의해 감리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만 담당하였고, 목포와 호남은 미 남장로교만 맡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1952년 9월 7일 목포로 피난 온 황원섭 전도사 외 7명이 강인순 권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포제일감리교회가 시작되었다. 1953년에는 복만동 2-9에 30평 가옥을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1975년 교회 신축, 2000년 이후에는 석현동 현 임성로 11-8에 새 예배당을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감리교회는 전국에 6,500여 교회가 있는데, 목포 지역에는 2017년 현재 목포광림교회, 실로암교회, 예수비전교회, 목포성광교회 등 모두 5개의 감리교회가 있다.

목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행정구역상 호남선교연회(전라남북도)의 전남서지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호남선교연회는 8개의 지방(전남 4개, 전북 4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남서지방은 2개 시, 8개 군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34개의 교회가 있다.

3) 성결교

웨슬리의 감리교에서 파생된 성결교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내적 죄뿐만 아니라 외적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회심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본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며 세상의 일반 관습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1901년 일본 도쿄에 동양선교회가 조직되어 복음전도관에서 전도 집회와 성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곳 성서학원을 마친 김상준, 정빈에 의해 1907년 한국 성결교가 세워졌다. 1911년 경성성서학원 설립을 통해 교역자 양성을, 1922년 ‘활천’이라는 교단 잡지를 통해 문서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0년대 들면서 한국 목사들을 통해 국내 성결교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목포 성결교는 1925년 5월 2일 장석초 전도사가 총회로부터 파송되어 와서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남장로교가 목포·전남에 선교하여 장로교회뿐이었는데, 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으로 성결교회가 처음 생긴 것이다. 이후 김응조, 이성봉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섬 출신 신자들이 목포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고향 섬으로 돌아가 신안 섬 곳곳에 성결교가 많이 세워졌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과 열정이 컸다. 목포(북교동)성결교회에서 이성봉 목사의 가르침과 도움을 통해 1931년부터 서울에 있는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방학기간에는 임자도, 증도, 자은도와 암태도 등지에 와서 사역하며 교회를 개척했다. 문 전도사의 전도와 헌신에 의해 수십 개의 교회가 생기고 그로부터 50여 명의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상락교회, 중앙교회 등이 설립되어 북교동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목포 성결교회를 이끌고 있다. 1970년대에는 동산교회, 낙원교회가 세워졌고, 1980~90년대 하당 지역에 연동중앙교회, 옥암교회, 북항 지역에는 푸른들교회 등이 세워졌다. 2000년대 이후 남악시대에 접어들어 이 지역에는 참사랑교회가 설립되었다.

1926년 최마리아 전도부인이 설립한 임성(지구촌)교회가 목포권내에 편입된 것을 포함하여 2017년 현재 목포에 소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모두 54개이다.

1950년대 말 한국 교회 연합 운동의 일환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장로교가 분열하듯 성결교도 갈라져 1962년 4월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새로 생겼다. 이에 속한 목포 교회는 1974년에 설립한 제일성결교회를 비롯하여 생명의빛교회, 휘광성결교회, 주능력교회, 영빈교회, 평안성결교회 등 모두 6개이다.

성결교 초기 1948년 10월 25일 정남수 목사 등에 의해 분열하여 생긴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가 있는데, 목포에는 1972년에 세워진 광명교회가 유일하다.

4) 그리스도의교회

1946년 최요한 목사로 인한 자생적 그리스도의교회가 함평그리스도의교회를 시작으로, 무안, 광주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최요한 목사의 조부와 그 형제들은 고종황제 시절부터 예수를 영접한 후 5명의 교역자를 배출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가문이었다. 그의 어머니 서은선 권사는 서경조 장로(평양신학교 1회 졸업)의 딸로 3형제(최요한, 최요열, 최요섭)를 모태신앙으로 양육해 목회자로 길렀다.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까지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교회가 존재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다가 로마서 16장 16절을 읽는 순간 교회의 명칭을 깨닫고 눈이 번쩍 떠졌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952년 목포에서 김명숙 집사 등과 더불어 목포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했으나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던 그는 서울 지역 그리스도의교회가 선교사들의 주장으로 성령 역사를 거부하자, 1953년 목포 지역에서 최초로 성령 역사의 목포유달교회(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다.

1954년 김사라 등의 초빙으로 또다시 개척(현 복음교회)하여 개척 6개월이 되자 봄소풍을 하었는데 참가자가 어린이 포함 무려 500명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명칭(간판)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다. 이름을 ‘그리스도의교회’로 하자는 측과 ‘복음교회’로 하자는 측으로 나뉘는 바람에 교회를 따로 새로이 열었다. 이것이 1956년 10월 1일 목포세무서 앞 대안동 11번지에서 시작한 목포그리스도의교회이다.

이후에도 최요한 목사는 성령이 역사했던 사도행전적 초대 교회를 따라 그리스도의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남 지방에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하였다.

목포그리스도의교회는 2대 김재중(1992년)에 이어 3대 신봉수(1994)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1996년 5월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2(산정동) 현 위치에 대지 1500평, 건평 74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2017년 1월 이무형 목사가 새로 부임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본질(생명·사랑)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로, 행함은 사랑으로」라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목포 지역에는 목포교회와 우창국 목사가 1992년 1월에 개척한 새목포교회를 비롯하여 예프랑교회, 예수사랑교회, 고하도교회, 죽교동교회, 형제교회, 목포제일교회, 달리교회, 외달도교회, 목포그린교회 등 11개 그리스도의교회가 있다.

5) 순복음

순복음교단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를 신앙과 신학의 뿌리에 둔다. ‘순복음’이란 이름은 미국에서 쓰던 ‘Full Gospel’을 직역하여 1953년 서울에 신학교를 세울 때 학교 이름을 ‘순복음신학교’라고 한 데서 비롯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 오순절신학이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월간지 ‘순복음’의 발행,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2017년 현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목포 교회는 연세선교교회, 순복음목포중앙교회 등 24개이며,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 소속 목포 교회는 예수소망교회 등 4개가 있다.

6) 침례교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목포성서침례교회는 1980년 4월 27일 동명동에서 박희원 목사가 개척하였다. 1982년 7월 2대 담임 노향모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는 전도와 구령에 열성을 다해 부흥 성장하였다. 1998년 목포사랑침례교회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주님의(행복한)교회, 세움교회 등 모두 4개의 성서침례교회가 있다.

1889년 캐나다의 독립선교사 펜윅이 토론토대학교 기독교청년회의 후원으로 극동선교에 뜻을 품고 내한하여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그는 나중에 침례교로 전향하여 선교활동을 하여 한국 침례교가 형성되었다. 목포 침례교회는 근원교회와 풍성한교회 등이 있다.

7) 복음교회, 재건, 구세군, 그 외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교회인 목포복음교회는 1955년 9월 20일 북교동에서 김사라 등 6명과 어린이들이 모여 창립하였다. 1984년 동명로 86번길 현 위치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포의 기타 교단 교회로는 구세군의 목포영문교회, 하당영문교회, 재건파의 목포재건교회, 임마누엘예수교의 로템나무교회와 반석교회, 그 외 목포형제들교회를 비롯한 독자적인 교회들이 있다.

2. 기독교 단체

1) 목포YMCA

1946년 4월 15일, 30여 명으로 시작하였다. 초대 이사장은 최섭, 총무는 채길용이 맡았다. Y 운동은 젊은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함께 따라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공동체 함양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나루학당, 남북평화공존과 통일 운동, CO₂ 줄이기, 자연과 공생 운동,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소통 운동, 빈마음, 빈손, 빈그릇 3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 어린이날 큰잔치에는 12,0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교회일치를 위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2,2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고삼수 이사장, 김재홍 사무총장 체제하에 영산로 67-2에 회관이 있다.

2) 목포YWCA

1947년 4월, 김소정 초대 회장, 고안식 초대 총무와 최찬열, 강진실 회원을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농촌부녀자 계몽운동과 문맹퇴치사업, 야간여자중학교 창설 등 교육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200여 회원들이 청소년 활동과 취약계층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봉사 활동, 선교 활동, 사회문제 등의 시민 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YWCA 어린이 집과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장학회 설립과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희망지원센터를 부설하여 청소년 장학사업과 여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현 회장은 이해경, 사무총장은 김은숙이다. 센타는 목포시 영산로 139(호남동 450번지)이다.

3)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1960년 홍순균, 이귀동 목사 등으로 시작한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체이다. 목포 지역 교회 연합 사업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인권 운동, 복음 선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 3·1절, 광복절, 성탄절 연합예배를 주관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홍순균(1대, 1960)을 시작으로, 이귀동(2대, 1961), 조남수(3대, 1962), 최대석(4대, 1963), 배응모(5대, 1964), 서정태(6대, 1965), 유흥목(7대, 1966), 윤재현/이완규(8대, 1967), 이정규(9대, 1968), 정재선(10대, 1969), 박종욱(11대, 1970), 이봉성(12대, 1971), 윤사현(13대, 1972), 이대구/심요섭(14대, 1973), 김학만(15대, 1974), 김현석(16대, 1975), 임현수(17대, 1976), 김덕래(18대, 1977), 유기문(19대, 1978), 이만성(20대, 1979), 나홍석(21대, 1980), 김동섭(22대, 1981), 이한철(23대, 1982), 김신원(24대, 1983), 윤여권(25대, 1984), 이두영(26대, 1985), 이신길(27대, 1986), 강만동(28대, 1987), 이정선(29대, 1988), 신차범(30대, 1989), 임서현(31대, 1990), 김재선/임상규(32대, 1991), 양태운(33대, 1992), 김성철/조경일(34대, 1993), 김중호/백영규(35대, 1994), 이기영/최기진(36대, 1995), 류재기/김순천(37대, 1996), 이영식/박양남(38대, 1997), 진요한/양근실(39대, 1998), 김양/모상련(40대, 1999), 이정선(41대, 2000), 명철봉(42대, 2001), 정용환/송귀옥(43대, 2002), 이신현(44대, 2003), 엄동진(45대, 2004), 김영수(46대, 2005), 김중욱(47대, 2006), 손길창(48대, 2007), 최신기(49대, 2008), 김명남(50대, 2009), 신봉수(51대, 2010), 김주현(52대, 2011), 심해석(53대, 2012), 조현용(54대, 2013), 김영옥(55대, 2014), 모경출(56대, 2015), 이승연(57대, 2016)이고, 2017년 58대 회장은 김광식 목사이다.

4) 목포연합장로회

1995년 9월 초 목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장로들의 친목과 연합사업을 위해 5개 교단(기장, 예장 통합, 예장합동, 예장개혁, 성결) 11명의 장로들이 발기인이 되어 뜻을 모으고 28일 창립을 하였다. 역대 회장은 전태홍(1·2·3대 연임, 1995~1998), 최일환(4대, 1999), 김재용(5대, 2000), 이종선(6대, 2001), 오정열(7대, 2002), 문남진(8대, 2003), 유기명(9대, 2004), 송태후(10대, 2005), 이우남(11대, 2006), 강대실(12대, 2007), 김계룡(13대, 2008), 강태국(14대, 2009), 정현수(15대, 2010),

김부영(16대, 2011), 김형배(17대, 2012), 천길호(18대, 2013), 박정완(19대, 2014), 김복은(20대, 2015), 노희웅(21대, 2016)이며, 2017년 현재 22대 회장은 김인성이다.

5) 한울부부클럽

1976년 12월 2일 전도, 교양, 친교, 봉사를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 김용대, 총무 박승을 비롯하여 15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다.

1977년 첫 선교집회를 시작으로 20여 회 실시하였다. 이 집회는 목포에서 개최한 첫 옥외 대형집회로 목포 지역 교계 강단교류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이뤘다. 1979년 목포제일교회에서 김준곤 목사를 초청하여 열린 집회에서 기장교단의 중앙교회 목사가 축도를 하고, 1989년 순복음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내세운 일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교단간 열린 강단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박승 회장과 한울부부클럽은 목포 시내 교회에 평화집회를 호소하여 27일 오후에 50여 교회 2만5천여 신도가 모인 가운데 평화집회를 열었으며, YMCA와 JC 등을 통해 무기회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울부부클럽은 1993년 목포성가합창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2016년까지 23회 개최하였다. 이런 일들은 목포 교회 교단들이 연합하여 이뤄낸 귀한 사업들이었다. 2008년에는 『한울부부클럽 30년사』를 발행하였고, 2016년 12월 12일 창립 40주년 기념회를 가졌다. 2017년 현재 41대 회장은 조규찬이고 총무는 박대근이다.

6) 목포평신도홀리클럽

기독교 평신도들의 초교파적 모임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목포를 범죄와 부패가 없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며 성시화 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9월 8일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은 김상열이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3전 전략으로 매월 첫째 월요일 11시에 모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한반도 평화와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145회째 지속해 오고 있다. 2017년 현재 13대 회장은 박영종이며, 사무실은 목포시 텃골로 5 새목포제일교회 다목적관 2층에 두고 있다.

7) 목포CCC

대학 캠퍼스 복음화 운동을 벌이는 목포CCC(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생선교회)는 1964년 3월, 광주CCC의 김안신, 권길용, 박행도 등이 개척하였다.

CCC는 1974년 'EXPLO 74'를 비롯한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95 세계선교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제자화 운동과 영적 부흥에 기여해 왔다. CCC는 특히 4영리를 통한 개인 전도와 제자화 사역에 힘을 기울였으며,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 지부 역대 간사로는 1964년 김안신, 변한규를 시작으로 1977년부터는 책임간사제도로 김영렬, 이후 1980년 문귀삼, 1989년 박병길, 1992년 최근세로 이어오다 2011년 정인섭이 맡아 2017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종래의 거지여행이라 일컫는 국내 전도행전에 이어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0년 필리핀에 김동현 등 35명이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여름과 겨울방학 중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 2~3개조씩 10~15명 내외의 인원들이 나뉘서 활동 중이다. 센터는 목포시 석현로 45번길 12에 있다.

8) 목포예수전도단

YWAM(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은 예수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1960년 로렌 커닝햄 목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전 세계 180개국에 1,0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18,0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단체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는 1970년대 초 단기 선교팀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와 복음을 전파했다. 1986년에 목포지부가 설립되었다. 하나님께서 1997년 이사야 35장 말씀과 '열방선교의 전초기지'라는 새 이름을 주신 후 목포의 정체성과 이루실 약속을 기반으로 사역은 더욱 구체화되었고 새 이름처럼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목포는 계속 변해가고 있고, 각 세대마다 다양한 훈련과 사역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1,000여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장년들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간 지속되는 정규 훈련을 마치고 교회와 도시, 세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단기 집회 등을 통해 목포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부흥 2000’ 콘서트에는 6,5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당시 유명했던 ‘HOT’란 그룹의 콘서트가 동일한 장소에서 열린 것과 비교되면서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는 후문이다.

목포예수전도단은 화요모임 등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는 찬양사역과 각 세대 안에 제자훈련과 일대일 양육을 포함한 학내 동아리, 직장 예배, YOUTH CAMP나 MISSION CONFERENCE와 같은 특별 집회, 단기 선교 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진정한 리더들을 양육, 바른 문화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가는 청장년 대상 BEDTS, 대학생 사역, 청소년 사역(초 1~고3 대상), MP(선교관 학교)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및 선교사 파송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섬기는 세계 선교 사역, 사무실 사역 등이 있다. 그 외 이 모든 사역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세계선교후원회가 있고 각 사역들의 다양한 주제의 단기 세미나와 도시와 나라,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목포시 호남로58번길 6-1에 있으며, 지부장은 최영숙이다.

9) 목포어린이전도협회

1979년 3월 21일 창립예배를 통해 목포어린이전도협회가 시작되었다.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 계로, 세계의 어린이를 예수님계로~”를 표어로 교회 밖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경적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도 주요 사역으로는 어린이전도(새소식반, 3일클럽, 어린이부흥회, 캠프, 대잔치, 유치원 전도, 파티 전도 등) 8,322명, 영접 수 2,357명이며, 교사훈련(주간 교사강습회, 절기강습회, 초청강습회, TCE1단계, TCE2단계, 3일클럽, 기타훈련 등) 1,946명이다. 2017년 현재 전남 목포시 신탄루길 40에 회관을 두고 있다. 대표는 모성온 목사이다.

3. 목포 기독교학교

1) 목포성서신학원

1947년 2월 20일 목포고등성경학교가 개교했다. 당시 목포장로회 소속 학교로 이사장에 이남규 목사, 교장은 이근택 목사, 학생 수는 39명이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후원이 컸는데, 조하파 명예교장을 비롯해 김아각, 유화례 등의 선교사들이 학교를 함께 책임지며 교수 활동을 벌였다. 1950년에는 학생 수가 182명에 이르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70년의 역사 속에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목포와 전남 일대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기장과 예장, 통합과 합동의 교단 분열과 함께 목포 고등성경학교도 교단별로 나뉘어졌으며, 현재 예장통합 소속으로 목포성서신학원으로 개명하였다. 2017년 학교 위치는 무안군 삼향읍 석매길 10이며, 원장은 양호산 목사, 실무책임자는 김계룡 장로이다.

2) 목포개혁신학연구원

2005년 예장개혁과 합동의 대통합이 있었는데, 이때 합류하지 않고 남아 있던 예장개혁 목포노회가 따로 설립한 총회 인준 지방 신학원이다. 서울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협력하며, 살리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라는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매주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 중이다. 학교 졸업 후 개신대학원대학으로 진학, 준목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학교 위치는 목포시 백년대로 83번길 6이며, 이사장은 모경출 목사, 학장은 김경호 목사이다.

3) 목포웨스트민스터신학교

1986년 9월 20일 설립하였다. 예장개혁총회 산하 신학교로서 서울 국제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목포 지역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오고 있다. 2017년 현재 목포시 고하대로 719번길 26에 있으며, 학장은 조광표 목사이다.

4) 목포신학교

1947년 목포고등성경학교 역사를 이어온 것으로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신학 교육 기관인데, 2005년 예장개혁과 합동의 대통합을 기회로 김영옥 목사 등에 의해 학교를 재편성하여 새롭게 열었다. 2017년 현재 목포시 영산로 635에 위치하며 이사장은 김광식 목사, 원장은 김경윤 목사가 맡고 있다.

5)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1903년 9월 9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목포여학교로 설립, 9월 15일 개교하였다. 1911년 3월 3일 정명여학교로 개칭되었고, 1937년 9월 6일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하였다. 1947년 9월 23일 복교하였으며, 1950년 3월 30일 목포정명여자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62년

호남기독학원으로 재단법인을 새롭게 조직하였으며, 12월 31일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63년 3월 1일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1974년 찬양선교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선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학교는 목포시 삼일로 45에 있고, 중학교 교장은 25대 조규태, 고등학교 교장은 21대 정종집이다.

6) 영흥중·고등학교

1903년 음력 9월 9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개설한 영흥서당으로 출발하여 1937년 9월 20일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하였다. 1952년 3월 21일 목포영흥중학교로 복교하였으며, 1980년 노회 재단으로부터 홍순기 이사장의 유집학원으로 변경되었고, 학교 위치도 1980년 8월 23일 상동 55번지로 이전하였다. 학교 이름도 이 때 ‘목포영흥중학교’에서 ‘영흥중학교’로 개명하였고, 1999년 3월 1일부터는 남녀공학을 실시하였다. 2017년 현재 중학교는 90회, 총 16,697명이 졸업하였으며, 교장은 김기현이고, 고등학교는 58회 14,089명이 졸업하였고, 교장은 김경중이다. 학교 위치는 목포시 삼각로 43번길 9이고, 이사장은 홍의식이다.

7) 목포덕인중·고등학교/ 목포혜인여자중·고등학교

설립자 이복주 장로와 광재근 목사는 성경에 바탕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인간 육성을 제1의 창학 이념으로 내걸고 1948년 10월 10일에 덕인학원을 설립하였다. 1954년 6월 28일 목포덕인중학교, 1964년 3월 6일 목포덕인고등학교, 1965년 12월 7일 목포혜인여자중학교, 1965년 3월 6일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기독교 사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념 위에 설립되었지만 임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날로 발전을 거듭해 온 이 학원은 신앙 교육이 계속 되어 왔으나 좀 더 기독교 학교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고 타 기독교 학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1993년 3월 1일 한국기독교 학교연맹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경적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타 기독교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신앙인을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덕인중·고와 혜인여중·고에 정식 교목을 두어 보다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금까지 기독교 사학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학교 위치는 목포시 죽선로 39-2에 있으며, 학교장은 서문옥(덕인중), 김은미(덕인고), 김무순(혜인중), 조웅현(혜인고)이다.

8) 목포국제기독교학교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실력을 키워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자 2012년 3월 6일 14명의 학생들로 개교를 했다. 지역적인 환경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국제교육을 접하거나 배울 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설립되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으로 진행하며 미국 사립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고 원어민들이 담임으로 대부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며 해마다 미국 전체 학교가 시험보는 SAT를 보고 있다. 2017년 학교는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0에 있으며, 이사장은 김상선 목사, 교장은 불란영선이다.

4. 기독교 책방, 기독교백화점

유진벨과 함께 목포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변창연이 운영했다. 그는 유진벨의 조사이며 동시에 매서인이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창기 때 전도지나 성경(쪽복음)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매서인’ 혹은 ‘권서인’이라고 했다. 196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했는데, 그들은 사업적 성격보다 복음전도가 주목적이었고, 오늘날 사업 성격이 더 크지만 기독교서점과 백화점 형태로 기독교 문서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1) 하당기독교백화점

1960년대 목포 최초의 기독교서점인 남산서점이 안동해 장로에 의해 동아약국 안에 문을 열었다. 이후 김재옥 장로가 인수하여 수문당 근처에서 경영하였고, 이국관 집사가 양동제일교회로 옮겨와 운영했으며, 뒤이어 황순기 장로에 의해 1호광장과 하당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했다. 이후 1호광장 서점은 폐쇄되고 하당 서점은 2010년 10월에 임점택 장로가 인수하여 현재 하당기독교백화점으로 개명,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비파로 61이다.

2) 목포크리스찬백화점

1970년대 송종현 장로에 의해 목포역 앞에 예수교서회가 문을 열었다. 이후 홍세권 장로에 이어 2000년 이준선 장로가 이어받아 목포크리스찬백화점으로 개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27이다.

3) 예수마을

1986년 송태후 장로가 복음서점을 시작하였다. 1992년 복음의집으로 확장하였고, 2000년에 1호 광장에서 옮겼으며 2005년 하당으로 다시 이전하여 예수마을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백년대로 390번길이다.

4) 목포기독교백화점

이정갑 장로는 1974년 10월 1일 해동성구사를 열었다. 홍일고 뒤편에 15명의 직원과 함께 공장을 차리고 목포, 신안, 제주까지 다니며 교회의 성구와 성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1980년 초에 예장통합 사무실 1층에 매장을 차렸고, 이후 1988년쯤 1호광장 120여 평 매장에서 목포 최초 기독교백화점 시대를 열었다. 목포기독교백화점이라 하여 도서, 음향, 커튼, 종탑, 광고, 표구 액자 등 여러 기독교 관련 업체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기독교 관련 사업을 벌인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높아진 임대료 등으로 여타 업체들이 각기 새로운 곳으로 흩어지자 이정갑 장로도 현 위치인 호남로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6-1(창평동)이다.

5. 기독교 언론방송

1) 『호남기독신문』

2011년 3월 박승, 김계룡, 김부영, 강태국 장로 등이 서남권 지역 문서 선교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고 『호남기독신문』을 창간하기로 뜻을 모으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18일 18명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사장 김계룡 장로, 사장 모상련 목사, 감사 박승 장로, 총괄본부장 박정완 장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월 11일, 1만부 발행의 첫 창간호를 발행하여 2017년 1월 현재 123호를 냈다.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112-1이다.

2) 『전남기독신문』

기독교세계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운동을 벌였던 목포크리스찬아카데미의 회보로 2000년부터 발간되다가 지역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전남기독신문』을 창

간하기로 하였다. 2001년부터 1년 동안 창간 준비호를 발행하였고, 김영현 장로를 초대 이사장, 2대 문익주 이사장과, 오원옥 목사를 편집국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웃 사랑의 실천, 교회의 갱신과 일치라는 사시로 2002년 4월 주간신문으로 창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중화길 1이고, 편집국장은 오의선이다.

3) 목포극동방송

1993년 목포에 유치 운동을 벌여 아세아방송 호남본부를 1994년 11월 14일 개설하였다. 초대 본부장 유춘환, 운영위원장 김부영 장로, 총무 박승 장로로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1년 4월 2일 목포극동방송으로 바뀌어 선교방송을 지속하여 왔다. 라디오 채널 FM 100.5MHz로 목포와 전남 서남권 일대를 대상으로 복음의 방송을 열고 있다. 위치는 목포시 비파로 61에 사옥을 갖추고 있으며, 지사장은 이인성이다.

4) CTS목포지사

2006년 2월 17일 복음선교 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초대 본부장은 명철봉 목사가 맡았다. 목포시 영산로 635 구영빌딩 4층에 소재하며, 주요 임원은 본부장 김광식 목사, 운영 이사장 조현용 목사, 지사장 김부영 장로이다.

5) CBS서부지사

2010년 1월 29일, 초대 운영이사장 양근실 목사 등으로 CBS 서부지사를 목포에 개설하였다. 2017년 현재 조현용 목사, 김주현 목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양호 |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